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FEB 5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39 1982년2월 4 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February 4,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쌀 전쟁 격화

도매상 토론토진출계기 반목노출

식품점들, 50LB. $18.94까지 내려

로블로, 도미니언, 미라클등 대 수퍼마켓들이 불경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인 덕으로 12월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식품점들간 가격전쟁에 불이 붙었다. 주 공격무기가 되고 있는 쌀값은 지난연말에 50파운드당$25.95하던 팬·아시아 장미표쌀(Pan Asia Rose Rice)이 2일현재 $18.95까지 떨어졌고, 그것과 경쟁자로 등장한 가주미(캘리포니아산 장미표쌀)도 이에 질세라 2일 $18.94(50파운드)로 내려갔다.

교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쌀의 대종을 이루는 품목은 흔히 국보쌀로 알려진 재팬·풋 계열의 일본쌀과 이보다 약간 값이싼 장미쌀 두종류가 있다.

최근까지 팬·아시아 식품회사(대표 이창복)가 공급하던장미표(Cal Rose)쌀과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DY식품(대표 강문웅)을 통해 들여오는 가주미(DY 장미표쌀)의가격전쟁 불씨는 각 한국식품 판매점을 상대로 도매업을 하고있는 팬·아시아 식품회사와 서울, 삼복, 한밭등 일부 식품점간의 거래에 문제점이 생기자 이들 3개 업체들이 또다른 장미쌀인 가주미를 다른 루트를통해 들여오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들은 팬·아시아가 독점기업의 이점을 이용, 부당이윤을 취해오면서 한국식품 본점및 각 지점등 방계식품점만 특혜로키워 · 도매업자로서의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팬·아시아및 한국식품 본, 지점들은 그같은 주장은 근거가없는 것으로 오히려 일본식품도매업자들의 횡포를 막는데 공헌, 누구보다도 한국식품의가격인하에 앞장서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한국식품점들은 교민신문의 광고란을 이용, 서로 스페셜 인하가격을 내놓는것과 아울러 서로를 비난하는성명전을 벌여 한국식품업자들간의 해묵은 반목이 노골화 되었다.

오랫동안 팬·아시아의장미쌀을 공급받던 한밭과삼복이미 3, 4년전부터 팬·아시아와 거래를 않던 서울의 세 식품점은 가격이 비슷한 D.Y. 가주미를 들여옴으로써 독주하던 팬·아시아 쪽에 견제세력을형성한후 지난 1월25일자 본지에서 광고로 이창복 팬·아시아 대표에게 "그동안 폭리에대한 공개해명"을 요청했다.

3개 식품점은 팬. 아시아가 장미표쌀로 7년간 쌀한자루당 $3씩 추가 이윤을 남겨 $42만8천4백을 벌어들였으므로 이를 교민사회에 반환할 용의가 없는가고 따졌다.

1일 삼복식품의 김규석씨는"한마디로 말해 독점 도매상인 팬·아시아가 그동안 너무 횡포를 부렸다. 팬 아시아측은 자기들의상품을 100% 사주기를 요구했으며 친척들이 운영하는 한국식품점 계열에 도매하는값과 다른식품점에 주는 가격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창복씨와 한국식품계열은 1일자 광고에서 쌀값이 내린이유는연말연시를 기해 생산지에서 쌀값이 내렸기때문이지 가주미의 토론토 등장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서 팬·아시아와 한국식품은 다른어떤 업자들보다약 5~10%싸게 물건을 공급해왔고, 철저한 가격정책과 서비스·품질관리로 꾸준한 기업성장을 꾀해 왔다고 주장했다.

본사 편집부는 29일과 1일및2일 이창복씨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이씨는 "시간관계상 현재는 응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한국식품점들의 경쟁에 대해 한 교민은 "쌀값이 아무리 내려도 한그릇 먹던밥을 두그릇 먹겠냐"면서 이번에 쌀값전쟁은 가격경쟁보다는 독점세력과 이를 견제하는 세력간의 감정적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아빠를 일하게 해요" 테드군(7살)의 애소 :
◇바쁜 가운데도 난데없이 폭설로 한창 대목을 맞은 토잉카 운전사들이 데모를 벌이고 있다.
1일아침 시청앞 광장에 모인 50여명의 토잉카운전사들은 시당국이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임의대로 차를 끌어가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제정하자, 주로 독립조직인 이들은 사업을 망치게 했다고 시당국에 항의하고 있다. 데모대는 쌓인 눈으로 가뜩이나 좁은 퀸스트릿에 주차, 교통혼잡을 빚었다.

제3세계 원조액
서방, 공산권보다 15배

(본)서방자유세계가 작년도 제3세계 (발전도상국 및 후진국)에 원조한 액수는 공산세계보다 15배나많았음이 서독정부에의해 밝혀졌다.

서독정부의 알빈·브루엑 개발원조성 장관에 따르면 서구선진국들은 작년 총267억달러를 제3세계 개발원조로 제공, 서구국민 1인당 평균 40달러를 기부한반면 공산권 국가들은 총18억달러를 제공, 국민1인당 평균 5달러의 기부를 한 셈이다.

동창음악인들열연
서울대 신년파티

서울대동창회(회장 이창희)는 지난 30일밤 트라이엄픈·쉐라톤 호텔에서약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파티를 가졌다.

해마다 1월 마지막 토요일 신년파티를 갖는 이 동창회는 이창수씨의 사회로 진행됐고 동창음악인 송영철(바이올린), 연경희(첼로), 이인선의 피아노 3중주와 송경란씨의 소프라노 독창등의 프로가 있었다.

부동산가격 자극않는
주택경기부양책쓸터

(서울29일=연합)김준성 경제기획원 차관은 29일부동산 가격이 뛰는것을 자극하지않는 한도내에서 침체된 주택사업을 부양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산업부양책으로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세금감면, 임대주택장려및건설업에 적용되는 행정절차간략화등이 포함된다.

평화통일안 설명
몬트리얼 김 총영사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 주재 김창훈 총영사는 지난 22일 교민들을 초대,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중 평화통일방안을 설명했다.

시내 쵸·스테기하우스에서 약 50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김총영사는 전대통령의 통일방안을 해설하면서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안을 북한측이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81년 무역불균형
수출보다 수입 $70억초과

(서울2일=연합)2일 대한무역인협회는 한국과 미국, 일본등 주요10개 무역 대상국들 사이의 무역불균형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협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이 작년에 위의 10개국으로부터 210억9,600만달러의 상품을 수입한반면 이들에게 130억9천만달러의 수출을 해 80억달러의 무역불균형을 기록했음을 보였다.

동협회는 이같은 무역불균형은 80년도의 72억2200만달러보다 10.8% 증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도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총무역불균형의 36.6%에 해당하는 29억3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일본과 가장큰 무역 불균형을 보였다.

동협회는 주요 10개무역 대상국들과의 무역적자는 작년도 한국의 총무역적자인 51억3900만달러보다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며, 한국정부는 주요무역 대상국들과의 무역불균형을 줄이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시설 무료이용
한국, 「아동복지법」개정

(서울2일=연합)13살까지의 모든 한국어린이들은 이달초부터 정부와 각도청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수있게 됐다.

어린이들의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정부는 2일「어린이 복지법」을 개정, 어린이들이 지하철, 기차등 국영 및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수있게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어린이 날」과 국가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관장하는 당국이필요할경우 성인요금의 반액까지 받을수 있게 규정했다.

정부는 이보다앞서 노인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각종공공시설을 반액으로 이용하게하는 비슷한 조처를 취한바있다.

경제강연, 임원개선
두 와이즈맨즈클럽모임

토론토한인와이즈멘즈클럽(회장 차선경)은 지난 1월29일 송인문회원 댁에서 가진 1월 월례회에서 새해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양로원건립위원회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겸하는새 와이즈멘즈클럽 정·부회장으로는 전 이사장 천중환씨와 나상선씨가 선출됐고, 사무장과 회계는 송인문, 이학련씨가 각각 맡았다.

양로원건립위원회의 새 이사장에는 김명규씨(한국일보 사장), 부이사장에 박경택씨(사업)가 선출됐다.

양로원건립위는 81년 봄 와이즈멘즈클럽에 의해 발기돼 초대작가전등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1만 정도의 기금을 모았다.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는 지난 1월중 $200을 양로원 건립기금으로동 건립위에 기탁했다.

한편 베타한인와이즈멘즈클럽(회장·이석현)은 지난 30일 홍승규 부회장댁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약 30명이 참석한 이 날 모임에서는 최승락 외환은행장의「외환은행의 현황과 전망」주제의 초대연설을 들었다.

이날 회무처리에서 중요안건으로 오는 7월하순 서울의 세계대회 참가문제와 장기 무단불참회원의 처리문제, 알파클럽과의 유대, 공동행사 계획등이 다루어졌으며, 끝으로 빙고게임으로 이날 모임을 마쳤다.

두 클럽 융화(유대)문제는 마침 내빈으로 초청 된 알파클럽 천중환 회장, 나상선 부회장과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2월중 양클럽 회장단 합동모임에서 구체적 계획을 짜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앞)

가정의 벗
한국일보

임송학 태권도 도장 2주년
RIM'S TAEKWON-DO SCHOOL
태권도

(79년 C.N.E. 시범경기광경)
개업 2주년 특별봉사
● 자신감 배양
● 호신술 연마
● 튼튼한 체력연마및 인격도야
● 한국인의 긍지 함양
※교포자녀들에 한해 특별할인회비
1963 WESTON RD.
(Weston & Lawrence) Loblaws 앞.
전화 : 247-7577 임 송 학

Instructor: RIM, SONG HACK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폴랜드노조 본산지 데모

14명 부상, 2백명 체포

(바르샤바)폴랜드 솔리대리티 노조운동의 본산지인 그댄스크항에서 30일밤 청년들이 중심이된 데모가 발생, 경찰과 충돌끝에 6명의 민간인과 8명의 경찰이 부상당하고, 205명이 체포됐다고 관영 PAP통신이전했다. 대부분의 노조지도자들이 체포된이도시는 지난 12월1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수일간을 제외하고는 큰 혼란없이 조용했었다.

PAP방송은 미정부의 선전에 자극을 받은 일부 소란분자들이 최근 계엄령의 제재가 다소 가벼워진것을 이용, 이같은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방송은 항가리노조지도자 샌도르·개스파르가 폴랜드 노조운동의 방향에 관해 토의하기 위해 바르샤바에왔다고 보도했다.

옵서버들에 의하면 폴랜드정부가 솔리대리티의 활동재개를 허용하긴 했으나 그전같은 행동의 자유나정치개입은 허용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SNOW EMERGENCY(제설비상사태경보)"

◇거리에 어느때 주차할 수 있는 곳에 파킹을 했으나 토잉트럭은 무자비하게 차를 끌어가고 있다. 적어도 $25를 토잉비로 내야하고, 끌어다 놓은 곳의 주차장비(기본료) 30달러에 1일추가마다 $5씩 더 내야 한다.

1일 토론토시 당국은 "눈 비상경보권"을 발휘, 시내 곳곳에 빨간 글씨의 스노우·루우트(Snow Routes)사인을 붙였다. 3일까지 발효된 이 사인으로 자동차들은 파킹장을 찾아 헤매야 했다.

트루도등 14개국 지도자

TV 출연 「폴」사태 비난

폴랜드의 자유 노조 솔리대리티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특별 TV 프로그램에 세계 14개국 지도자와 헐리웃의 유명인사들이 출연, 소련의횡포를 비난하고 폴랜드국민의 자유정신을 찬양했다.

30일밤 세계 50여개국에 위성중계된 미국정부지원의 〈폴랜드의 주권은 폴랜드에게〉라는 프로에서 트루도 캐나다 수상은 「폴」정부가 계엄령을 조속히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레이건 미대통령은 소련이 폴랜드에 야만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폴랜드의 위기가 계속 심화될 경우 미국은 강력한 조처를 취할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소련에 경고했다.

90분간의 이 프로에 출연한 세계지도자는 미국, 캐나다외에 영국의 댓처수상, 독일의 슈미트수상, 일본의 스즈끼수상등이고 헐리웃 인사로는 프랭크·시나트라 봅·호프, 촬톤·헤스톤, 오손·웰즈등이었다.

한편 소련과 폴랜드정부는 이 프로가 헐리웃의 유치한 전통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값싼 쇼로서 우스꽝스런 희극적 선전이라고 비난했다.

◇새로 캐나다피겨스케이팅 챔피언이 된 케이·톰슨(가운데)과 2위 엘리자벳·맨리(좌), 그리고 전 챔피언으로 올해 3위로 처진 트레이·와인맨.

은반의 여왕 톰슨양

피겨스케이팅 여자부 우승

(브랜든－매니토바주)마니토바주 브랜든에서 벌어진 캐네디언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여자부문의 최종심사결과가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눈물사태가 벌어졌다.

새로운 캐나다 챔피언이 된 토론토출신의 케이·톰슨양은 우승이 확정된 순간 기쁨의 눈물을 쏟았고, 3위로 확정된 전 캐나다챔피언 트레이시·와인맨(14)양역시 무대뒤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

전캐나다챔피언이었던트레이시가 3위로 처진데 대해 캐나다피겨스케이팅 협회회장 데이빗·도어씨는 "키가약 6인치나 자라나신체적으로 시련을 받고있는 것같다. 다시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레이시양은 이날 경기중 세번이나 넘어졌다.

이로써 그녀는 오는 3월 덴막에서 열릴 세계대회에도 단지 후보선수로서만출전하게 됐다.

한편 [illegible]캐네디언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쉽 남자 시니어부에서 전년도 챔피언, 온타리오주 베네태기쉰의 브라이언·올서(20)군이 다시 1위를 차지, 2년패했다.

올서군은 캘거리의 브라이언·폭카군을 아슬아슬한 점수차로 물리쳤다.

폭카(22)군은 3년간 캐나다 챔피언이었다가 작년 올서군에 타이틀을 뺏겼었다.

피겨스케이팅은 7명의심판들이 기술면과 예술면의 두가지로 나누어 각 6점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챔피언 올서군의 점수는 기술면에서 42점만점에 40.8점, 예술면에서 42점 만점에 41.0점, 2위의 폭커군은 40.8점과 40.4점으로 예술면에서 약간 뒤처졌다.

젖소5천마리 수입

우유제품부족대비

(서울 1일＝연합) 한국정부는 예상되는 우유제품의 부족에 대비, 올해 젖소 5천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1일 농수산부 소식통이 밝혔다.

농수산부의 추정에 따르면 금년 우유 수요량은 64만톤으로 작년보다 11.7% 많다.

한국의 올해 예상 우유생산량은 588,000 톤으로 계획공급량보다 52,000 톤이 부족하다.

주소록 발간

런던 한인회

★런던한인회(회장 하광용)는 국판(5치×7치)44면 의 82년도「런던지역 한인주소록」을 펴냈다.

이 주소록에 따르면 런던한인회원(세대수)은 147명, 노년회원 42명, 청년회원 48명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여행상식〉

항공권은 1년간 유효

전화예약 공항에서 찾을 수 있어

김창범 (신세계여행사)

◇김창범씨

편집자주 : 본란은 교민들의 여행상식을 넓히려는의미에서 토론토 소재 신세계여행사 김창범씨의 글을 6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번 김씨의 컬럼에서는 주로 모국방문에 대한 소재를 위주로 다루었고, 다음주부터는 천우 여행사의 김현두씨 기고로 프로리다 휴양지와 유럽여행에 관한 컬럼이 연재된다.

독자들의 궁금점이나 희망사항등은 본사편집부 또는 필자에게 문의 하길 바란다.

4. 환불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1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그후에항공요금이 변경되어도 일단 사용이 시작되면 추가요금의 지불없이 1년간 유효하다. 예를들면, 토론토를 출발할때 1년6개월된 유아가 2세가 넘어서 돌아와도유아의 항공권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방문초청자를 위하여 보낸 항공권은 보낸지는 오래 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된후 여행하기 위하여 사용할때 요금인상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단 여행이 시작되면 요금인상과는 무관하다.

간혹 서울에 갔다가 사정에 의하여 항공권의 돌아오는 부분을 사용하지않게 되었을 때는 나머지부분을 환불받을수 있는데, 그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라야 한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방문올 때 왕복권을 가지고 왔으나 이곳에서 돌아가지 않을 때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이민이 확정되었거나 수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 현찰로 환불하는 대신 MCO, 즉 여객탑승이나항공화물등 항공기를 이용할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환불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요금을 지불하였거나 환불이 안된다고 기입돼 있는 특수항공권은 환불이 안된다. 이 이외에 한국에서 원화로 지불한 항공권은 이곳에서 환불이 안된다. 한국정부의 외화관리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런 항공권은 한국에서 원화로 환불받을 수 있다.

5. 국내선 또는 관광휴가용 항공권

우리 한국인여행사는 한국방문이나 방문초청에 필요한 항공권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내나 미국, 기타 어느 목적지를 막론하고 항공기, 기차, 선박, 자동차, 호텔, Rental car등 여행에 따른 모든 것을 취급하는 여행알선업체이다. 달나라 가는 것만을 아직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기타는 모든 여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취급한다. 케나다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요새는 제도가 편해져서 일일이 여기까지 나오시지 않아도 된다. 전화로 언제, 어디로 가겠다고 일러주면 모든 준비를 갖추고 본인이 출발할 때 공항의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표를 찾아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찾아올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전화 하나만으로 처리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사전계획에 의하여 오래전에 예약해 두면 가격도 싸고,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돌아오는 날도 그곳에 가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결정함으로써 요금도 저렴하고 또 계획성 있는 여행이 가능해진다.

... ...

이상 간단하게 일하는 틈틈을 이용하여 한국교민 여러분의 여행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추려서 나열해 보았다. 이것이 보탬이 된다면 큰 보람으로 여기겠다. (끝)

용인에 회교계 대학

대한회교도 연맹, 건축중

(서울 30일＝연합) 이슬람교(회교)를 한국에 널리 포교하려는 시도로 서울에 본부를 둔 대한회교도연맹은 올해 몇가지 종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29일 동 연맹 이희수 부 사무총장이 밝혔다.

이씨는 이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는 8월2일~12일까지 인천 유네스코청소년센터에서 열리는 국제회교도청소년대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최초로열리는 이 대회에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타이완, 쿠웨이트,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등 10여개국에서 60여명의 회교도대표들이 참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이슬람계 대학을 세우는데 대해 이씨는 서울에서 40km 남방에 위치한 용인에 이미 부지를 확보, 건축중에 있다며 내년에는 문을 열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교는 한국전 쟁때 참전했던 터키군의 일원이었던 2명의 이맘(Imam: 회교군의 종교적지도자의 칭호)에 의해 55년 소개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 부산, 광주 3곳에 이슬람교 사원이 있다.

다시 대형차 인기

81년 여름부터 큰 고급차 수요늘어

유류파동으로 인해 유류절약형인 중소형차로 쏠렸던 미국인들의 자동차 선호경향이 최근에 다시 대형차를 많이 사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대형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딜러들의 진열장에는 소형차가 팔리지 않아 즐비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대형차는 구경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1961년이후 최악의 불황을 맞이 하였으며 80년에 비해 5.7%나 판매가 부진해졌으나 81년 여름부터 고급 대형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급 대형차의 예기치 않은 증가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생산업계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생산계획으로 고심하고 있다.

포드의 경우를 예를보면 고급 대형 자동차 조립공장을 가동한 곳은 지난 1월초만해도 미시간주에 있는 위섬 한군데 뿐이었다.

제네랄 모터스의 경우 전체 판매실적은 7.8%가 줄었으나 6인승 올스모빌 88의 판매는 7% 증가했으며 이보다 조금 고급인 98의 판매는 15% 증가했다.

또한 캐딜락은 81년도에 10.2%의 판매 증가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의 더브린에 있는 쉼록포드사의 월째 사장은 『한 일년전만 해도 대형차를 팔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현재 고급 대형차는 모두 팔려 한대도 재고가 없다』고 고급대형차의 수요 급증을 설명한다.

뉴욕주 용커스에 있는 마크 뷰익의 허만 사장은 뷰익 일렉트라, 러사브레등 대형차는 있는대로 다 팔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대형차를 많이 재고로 갖지 않았으나 작년 여름부터 대형차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실감했으며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동차 딜러들은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고급 대형차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서 닷산과 올즈모빌 딜러를 하는 오메니엘씨는 『많은

대형차 가격 인상되면 다시소형차 활기찾을듯

사람들이 휘발유 가격이 계속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유류 파동이 생길것으로 걱정했으나 요즘은 그런 걱정이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피력한다.

또한 지난 5년간 대형차도 많은 부품에 가벼운 물질인 프라스틱, 알미늄등을 사용하여 휘발유를 상당히 절약하도록 개선 되었다.'

이밖에 디젤 엔진은 동급의 휘발유 엔진보다 25%정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대형차 보급에 큰몫을 한다.

올즈모빌의 경우 대형차 생산중 약 30%가 디젤 엔진이다.

대형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다른 원인으로 딜러들은 대형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소형차의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지적하고 있다.

사우스 다코다주의 래핏시티에 있는 래핏 쉐보레의 판매 매니져 에베트씨는 임팔라에 모든 옵션을 합해 1만50달러에 판매하는데 GM의 중형차인 셀레브리티의 경우 1만달러이며 소형차 카발리어는 9천3백달러에 판매된다고 설명한다.

에버트씨는 이어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크기와 가격을 보면 휘발유 소비량이 비슷하고 실내의 크기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형차를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차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에버트씨는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대형차의 판매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분석한다.

81년도에 판매된 중소형차는 국내생산과 수입 차량을 합하여 61.1%였는데 전문가들은 소형차의 판매증가는 앞으로 수년간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 분석가 드센자씨는 소형차들이 심한 가격 경쟁을 벌이면 대형차가 누려온 가격면의 잇점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가격 정책은 1백80도로 바뀔것이며 자동차 생산업계에서는 소형차의 가격을 크게 인상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것』이라고 피력한다.

드센자씨는 또 『지금부터 자동차 업계는 대형차의 가격을 인상하려고 계획하여 대형차 가격이 인상되면 어느정도 침체됐던 소형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IATA 천우여행사

모국방문에 특별봉사

1982년 2 월 1 일~1982년 3 월31일까지
기간중 당여행사를 통해서
서울(또는 부산)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는 분에게
특별봉사 합니다.

HERALD TRAVEL SERVICE
720 SPADINA AVE. SUITE 104
(AT BLOOR TORONTO, ONT
B)416 928－3335 R)651－8081 김현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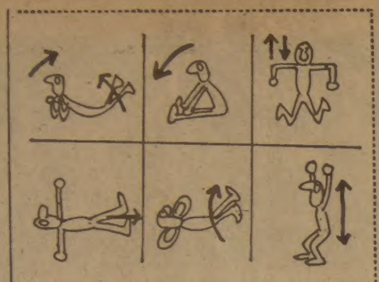
유럽단체관광모집

출발일자 : 제 1 진~ 1982. 4. 28(수)
제 2 진~ 1982. 6. 23(수)
귀환일자 : 제 1 진~ 1982. 5. 19(토)
제 2 진~ 1982. 7. 10(토)
방문도시 : 런던③, 암스텔담①, 프랑크푸르트①, 인스부룩크①, 베니스①, 후로렌스①, 로마②, 니스①, 루쎄른①, 빠리② (○ 안은 유숙일 수)
요 금 : 제 1 진~ $ 1,570
제 2 진~ $ 1,730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 1 급호텔숙박 (2 인 1 실)
○대륙식아침(12회) 저녁식사(7회)
○구라파내 교통및 중요관광과 입장료
예 약 : 1 인당 $ 300 1 진 1982. 3. 26 까지
2 진 1982. 3. 31 까지
*예약금은 취소 한경우 반환치 않음
잔액지불 : 1 진~ 1982. 3. 26.
2 진~ 1982. 4. 30
기 타 : 안내는 영어로만 함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함

디스크

약한 허리는 外部충격에 잘 미끄러지고 삐뚤어져

척추 變位로 椎間軟骨이 밀려나 神經을 압박



디스크는 인간에게만 나타난다. 척추변위에의한 추간연골의 미끄러짐이나 꼬여짐에 의하여 신경이 압박당함으로써 느끼는 통증이 디스크이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세가 바르지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두다리로 서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자잘무리가 걸려있는곳은 허리이며 디스크도 허리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많다. 허리는 인체의 중심부로써 몸의 자세를 조절하는 곳이며 상체와하체를 연결 통제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허리를 바르게 하는것이 디스크의 예방법인 동시에 치유법이다. 따라서 언제나 요추 1, 2, 3, 4, 5번은 바른 상태가 되어있어야 한다. 허리를 바르게 하기위하여는 전신이 바르지않으면 안된다. 부분적인 바름은 무의미하다. 몸전체의 외형을 바르게 하기위하여는 우선 자신의 몸의 자세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있으며 틀어져있는가를 조사하여 제거하는 체조를 해야한다. 이것이 허리를 바르게하는 체조법이며 또

예방과 치료는 항상 바른姿勢유지

디스크 방지를 위한 체조법이기도하다.

체조법을 보면 1, 노인의 허리처럼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엎드려서 양팔꿈치를 세워 턱을 받치고 배를 축으로하여 머리와 두다리를 들어올리는 [illegible] 앞으로 굽어진 [illegible] 에 이상을 일으킨 요추 1, 5번에 대한 수정체조이다.

2, 배가 나와있어서 허리가 뒤로 넘어진 자세는 두다리를 나란히 편채 앉아서 양발가락을 몸통쪽으로 끌어당긴후 허리부터 앞으로 굽혀간다. 이때 다리뒷쪽과 허리가 당기도록 한다. 요근수축에의한 척추의 만곡을 바르게한다.

3, 눈을감고 똑바로 섰을때 한쪽어깨가 처져있는 경우는 무릎을 끓고앉아서 다른사람에게 그쪽어깨를 누르라고 하면서 자신은 [illegible] 올린다. 몸이좌우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요추2번이 바르지못한 경우의 수정체조이다.

4, 똑바로 누워서 두다리의 길이를 발뒤꿈치로써 관찰한다. 어느 한쪽다리가 짧아있는 경우는 똑바로 누워서 양팔을 양옆으로 펴서 짧은쪽의 다리를 강하게 아래쪽으로 밀다가 급히 탈력시킨다.

중심편중에 의한 척추만곡을 바로잡는다.

5, 똑바로 누워 양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5cm정도 떨어지게 한다.

양무릎의 높낮이를 본다. 무릎의 높낮이가 있으면 엎드려 누워서 양손은 턱밑으로 깍지잡고 무릎이 높은쪽의 다리를 들어올려서 그반대쪽으로 보낸다. 요추3번이 비틀어진 경우의 수정체조다.

6, 전신에 힘을빼고 누웠을때 양발이 너무 바깥쪽으로 쓰러져 있든가 또는 안쪽으로 기울어져있을때는 선자세에서 양손을 가슴앞으로 합장하여 발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제자리에 앉는다. 이때 양손은 위로 펴면서 양무릎은 벌린다. 일어설때는 다시원자세로 되돌아간다. 5~6회 반복한다. 골반이상에의한 요추 4번의 움직임이 바로 잡혀진다.

모든 동작은 숨을내쉬면서 허리에 힘을주어 행하여야한다.

디스크가 발생한 사람의 공통적인 요인을 보면 허리힘이 약하다. 허리힘이 약하면 외부로부터 조그마한 충격이 와도 요추는 그 위치가 이동되기쉽다. 원래 골격은 강해야하고 근육은 유연해야 하는데 허리힘이 약하면 골격도 약해져 버린다. 또 체조를 행하는 목적은 이미 어긋난 척추에 무리하게 직접 자극을 주어 바로 잡는것이 아니다.

◆롤러스케이트 타는 페이·더나웨이—새로운 브로드웨이 연극「아픈 마음의 저주」리허설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있는 더나웨이. 이 극은 뉴욕 리틀·디어터에서 25일 오픈한다.《뉴욕— 》

<매일연재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27)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그는 물한컵을 떠가지고 조심히 들고 나가 내가 누워있는 텐트주위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걸으면서 그의 이린젤로를 찬송가처럼 단조로운 음성으로 불렀다. 그는 가끔 노래를 뚝 끊고 물컵에다 대고 나쁜 귀신이 내몸에서 나가고 좋은 귀신이 들어오라고 빌었다. 이렇게 하기를 매번마다 5분내지 10분씩 하더니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물을 나에게 건네주면서 단숨에 들여 마시라고 말했다.

내가 아픈 중에도 그는 내가 이 물을 거절하고 콧방귀를 뀔까봐 비참할정도로 두려워 하는것 같았다. 그는 나를 도와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반면 자기자신과 자신의 믿음이 나에게 조롱을 당할까봐 매우 조바심을 내는 것같았다.

나는 엄숙한 자세로 그 물을 받아 마셨다. 그런데 어쩌된 일인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면서 금방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겨우 텐트에서 기어나와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은 매우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혹시 오텍이 물에 자극제를 타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였다.

내가 사타구니에 심한통증을 느끼며 이 생각에 젖어있는 동안 복통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텍은 문가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며 긴장된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내가 미소로 대답하자 그의 웃음은 금방 바보같은 웃음으로 변하면서 재빨리그 자리를 떠나 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나의 병을 고쳐준 것은 분명히 믿음이 아니었고 적어도 내 믿음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오텍에게 도와준 것을 감사하면서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물컵에 좋은 신이 들어오고 나쁜 귀신이 나갔을 따름이라고 단순하게훌륭한 대답을 했다.

그날 늦게 오텍은 다시 내병을 고쳐준 비밀을 반쯤 암시해 주었다.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렇게 아팠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앞으로 5일동안은 사슴을 쏴서는 안되며 만일 이것을 어기는 날이면 사슴이 배에 총을 맞고 고통하는 아픔을 내 자신도 겪게될 것이라고 수줍은 듯이 말했다. 다행히도 그다음 5일동안은 사슴을 잡지 않아도 되었고 일부러 오텍의 지시를 시험해볼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지금까지 이할미우트의 영적인 믿음들에 대하여겨우 조금밖에는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방인이며 회의에찬 안목으로 본 나의 경험담이 독자들에게는 바랜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을 쩌들게 하는 악몽에 시달리고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사람들이 원시적인 마음에서 창조해낸 자기들의 귀신과 신에 쫓기면서 살고있다고 느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더욱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는지 아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은 온전히자기들의 세계에 속해있고 우리들과 우리들의것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면모를 공박할 수 없다고 늘 생각했었다. 그들의 믿음은 수세기를 두고 생겨난 것이며 이 믿음들 은 그들의 생활의 필요성에또는 그들의 자연조건에 맞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이 믿음들을 믿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포인트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우리들의 종교를 원주민에게 강요하려고 했을 때 늘 생각하지못하는 점이다.

여기 해변에 살고있는한 에스키모가 한 선교사의열렬한 지도를받고 일주일만에 나와서 우리의 종교 에 대하여 그의 의견을 이야기한것이 있다. 그의 이야기는 원주민에게 동정을갖고있었던 식견이있는 그지방 무역자에게 너무 솔직하게 들려주었기 때문에당황했다고 한다.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야하니 참말로 딱하오! 그 목사는 당신들이 믿는것과 당신들의 하나님에대하여 장시간동안 이야기를 해줬다오. 이들 날개를 갖고있는 악마와 신들은 하늘에서나 땅속에서 산답디다. 정말로 나는 경악감을 금치못했고 두려워 졌어요. 당신은 백인이니까 당신들의 믿음이 당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든 공포에서 살아남을수있는 큰힘과 굉장한 부를갖고 있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줄만 알았지요.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제5회 수학경시대회

본 토론토 지구한인 대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학구력의 장려와 우수한 후배양성을 목적으로 수학 경시대회를 실시합니다.

참가자격 : 20세이하(1961년2월20일 이후생) 온타리오고교 재학중의 한국학생 쥬니어부—9, 10, 11학년 씨니어부—12, 13학년
시 간 : 1982년 2월20일 토요일 오전11시
장 소 : Univesity of Toronto(60 St. George St.) McLennan Physical; Lab. Room 102
출제방식및 수준
●영문으로 쓰여진 과학배경의 수학문제
●Junior부는 9, 10, 11학년수준
●Senior부는 12, 13학년 수준
(단, 13학년 CALCULUS, ALGEBLA제외)
등록방법 : 아래의 양식대로 서신으로만 접수함 (참가자의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 낼 곳 : KUSA/2067 Islington Ave #1114 Weston, Ont. M9P 2R8
신청마감 : 1982년 2월17일(수)
시 상 : Senior부 1, 2, 3등(장학금) Junior부 1, 2, 3등(상패및 부상)
참 가 비 : 없 음
문의전화 : 247—2998(김중수), 498—6380(임정혁)
발 표 : 4개 교포신문에 수상자 발표함과 동시에 개별통지함.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 대학생회
후원 : 한인장학재단

개 업 인 사

김명숙회계사무소
(KIM'S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닥아오는 TAX 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2월1일부터 아래와같이 사무실을 마련 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회계 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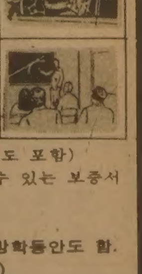
약력 : 19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대학교 회계학 전공
5년간의 C·A.Firm근무
현재 C.G.A. Undergraduate(5th Level)

장소 : 484 Bloor St.W.(강찬영변호사 사무실 내)
전화 : (B) 537—3171, (R)669—2710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캄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技術혁신 汎국민 次元서

全대통령、첫技術振興확대회의 참석 強調

"高級人力、幼兒교육서부터"

大學 이론치중 改善·工高 목적의식 맞게

살아나가려면 品質·국제競爭力향상을

장차 技術要員대우 行政要員보다높게

全斗煥 대통령은 29일『80년대先進工業國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高級人力양성 品質개선 생산성향상을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전제、『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가 혼연일체가 돼 汎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를 꼭 성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중앙청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技術振興확대회의에 참석、이같이 강조하고『우리가 살아나가기위해서는 수출을 늘려나가야 하며、수출확대에 관건이 되는 품질개선 생산성향상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밖에없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고급人力양성을 위해서는 幼兒교육에서부터 시작해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교육을 內實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대학교육은 理論만 가르칠것이 아니라 實習이 병행되는 교육으로 내실있게 발전돼야하며 工高도 목적의식을갖고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과학기술人力을 양성해놓고 대우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행정요원과기술요원간의 보수차이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어느시기에는 기술人力의 대우가 행정요원보다 월등히 나아져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또『정부나 기업들은 國産제품의 성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國産品愛用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2의 跳躍 차원에서 이를구입해주어야만 공장이 잘가동되고 계속적인 품질개선을기해 선진국대열에 진입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尹潽善前대통령만나 全斗煥 대통령이 29일낮 서울코리아·하우스에서열린 「老人문제를위한 元老간담회」에 참석、尹潽善前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敬老·老人福祉 적극추진

全대통령、元老간담회서 밝혀

全斗煥 대통령은 29일『정부는 敬老사상의 高揚과 노인복지향상대책을 적극 연구검토해 점차적으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낮 서울中區筆洞 코리아·하우스에서 있은 大韓老人會(회장 李圭東·73)주최「노인문제를위한 元老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元老들과 오찬을함께하며 이같이 밝히고『年老한분들이 질서의식의 고취등 우리사회의 기풍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있어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격려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기를바란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한국의 美風良俗은 西洋에서도 부러워하고있다』고 밝히고『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예정이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한 전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자리에서 俞鎭午、崔奎南、韓景職씨등 元老들은『停年制때문에 노인이 아닌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있어 이들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敬老는 연령과체질에 맞는 일자리를 주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생각한다』고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尹潽善前대통령、白樂濬前참의원의장、尹致暎前共和黨의장서리、金顯哲前內閣수반、朴順天前民衆黨대표위원、李應俊前육군참모총장등 元老들이 참석했다。

李科技處 보고

生産직결技術 집중개발

企業연구소등에 7백95억支援

政府는 80년대 經濟社會발전을 技術주도로 이룩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뒷받침할 技術및 人力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技術優位정책을 적극 펴나가기로했다。

全斗煥 대통령 주재로 29일 상오10시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技術振興확대회의에서 李正五과학기술처장관은 「技術주도의 새시대 전개를 위한 80년대 技術革新의 課題와 대책」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당장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애로기술 타개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과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李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核을이루고있는 政府出捐 연구기관의 기능과역할을 크게 개선、생산과직결된 産業기술을 집중개발해가는 한편 민간기업 연구소를 적극 육성、민간기술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토록하는 동시에 기술개발활동을 과감히 국제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민간연구소를 적극 육성키 위해 ▲稅制와 金融면의 지원확대는 물론▲연구요원의 兵役特例 조치및 해외연수의 확대와 ▲민간연구소에대해서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대기업은 1社 1연구소、중소기업은 産業技術연구 종합체제를 갖추어나가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李장관은 또 기술의 가속적인 고도화와 연구개발의 거대화및 시스템화、美日등 先進國의 半導體전쟁을 비롯 브라질등 신흥공업국과 중공의 기술동향、기술보호주의와 기술격차의 深化등 최근의 국제기술환경을 분석 보고하고 이에대처、80년대 우리나라 産業發展을 선도해갈 核心戰略 技術의 土着化를 위해 전략적비교우위 기술인 半導體、컴퓨터、정밀화학、기계자동화기술、遺傳工學등을 國策과제로 선정、이를 企業주도로 기업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해외첨단기술을 신속히 흡수、기업화 할수있도록 유도키위해 소수의 과학자나 기술자가 創業운영하면서 기술집약적 신제품을 개발、기업화 하려할때 이를 자금면에서 지원해주는 벤처·캐피탈(新技術投資)을 技術開發주식회사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진흥주식회사 그리고 6개 短資회사가 공동출자、설립을 추진중인 신기술投資회사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적극추진해 나갈방침이라고했다。

또 이들 회사를 통해 미래형 중소기업이라할수 있는 소프트웨어하우스、디자인센터、생명공학、레이저光學加工、정밀화학、電子의료기기등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올해 기술개발지원금을 크게 늘려 5백억원의 산업은행기술개발자금과 2백95억원의 기술개발지원금등 7백9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美도지어將軍 劇的구출

被拉42日만에 伊경찰、붉은旅團아지트 奇襲

健康상태는 良好…테러犯 5명逮捕

【파두아(이탈리아) 28日UPI聯=聯】이탈리아의 테러진압경찰은 28일 파두아 시내 「붉은旅團」의 한 아파트를 전격기습、지난해 12월17일 피납된 제임즈·도지어 美육군준장을 42일만에 무사히 구출하고 도지어장군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있던 한명을 포함、5명의 「붉은여단」 테러범을 체포했다。

긴수염과 맨발에 조깅복차림으로 구출된 도지어장군은 『기분이 매우 좋다。정말로 기분이좋다』고 말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면서 도지어장군과 2분간의 전화통화를 가졌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軍 西部유럽사령부 병참·행정담당부참모장인 도지어 장군(50)은 42일간의 억류생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건강상태를 보였으며 곧美육군병원으로 옮겨졌다。

약 90초간 소요된 이날의 전격 기습작전은 상오11시36분(한국시간 하오7시36분) 10명의 특공대가 파두아시내 64가구가들어있는 한 현대식 아파트건물의 2층에 자리잡은 「붉은 여단」의 거점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특공대는 단 한발의 총격으로 아파트문 자물쇠를 부순뒤 테러범 한명이 도지어장군의 머리에 소음권총을 발사하기직전、테러범 5명을 덮쳐 총격전없이 도지어장군을 구출했다。

경찰은 도지어장군이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한텐트 안에 눈을 가리운채 쇠사슬로 묶여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10명의 특공대가 장차 테러범들의 공격목표가 되는것을 막기 위해 복면을쓴채 방탄조끼를 입고 작전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도지어장군은 부인 주디드여사、맥스웰·랍 駐이탈리아 미국대사와 전화통화를 가진뒤 자동차편으로 40㎞ 서북방 비첸자에있는 美육군병원으로 옮겨진후 삼엄한경비를 받고있다。

경찰은 체포된 테러범중3명이 안토니오·사마스타(26)와 그의 여자친구 에밀리아·리베라(26) 그리고 세자레·레나르도(22)라고 밝혔는데 사마스타는 붉은 여단의 사르디나 조직책으로서 지난78년 알도·모로수상 납치 살해사건으로 수감중인 붉은여단 지도자 마리오·모레티의 측근이다。

도지어장군은 지난해 12월 베로나시의 그의 아파트에서 연관공으로 가장한 4명의 붉은 여단 게릴라에게 납치되었었는데 붉은 여단이非이탈리아人을 납치하거나 나토에 대한 공격을 가한것은 이사건이 처음이었다。

붉은여단은 그동안 5차례의 성명을 통해 나토가「美제국주의」의 도구이며 도지어장군은 「양키돼지」라고 비난했었다。

경찰소식통들은 당국이 이날 아침에야 도지어장군이억류되어있는 소위 「人民감옥」의 소재를 제보받았다고 말했는데 일선 보도들은 경찰이 이미 3일전부터 문제의 아파트를 감시해왔다고 말했었다。

이탈리아 경찰이 붉은여단에 의해 납치된인사를 구출한것은 11년전 붉은여단이조직된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劉總理 지시

外製담배·酒類등 團束강화

劉彰順국무총리는 29일하오 국무회의에서『외국산담배와 酒類등의 市中유통과 密搬入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은 소속공무원과 산하국영기업 任職員및 사회지도층인사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강화하고 외래품추방운동에 솔선수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劉총리는 또『정부의 기능분석작업이 새로운 공무원의 감축이나 숙정을 하려는 의도가아닌가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할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어디까지나 類似·중복기능등 불합리한점을 조정하려는것일뿐』이라고밝히고『작년과같은 공무원감축은 일체 없다는것을 인식시켜 공무원들의 동요나 불안으로인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劉총리는 이어『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在物조사가 과거와같은 형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이번의 조사결과 不用品이 발견되는경우 관계공무원은 물론 기관장까지 문책할방침』이라고 밝혔다。

南北對話지지·韓墺협력 增進

파르外相 離韓회견

오스트리아의 빌리발트·파르外相은29일 全斗煥 대통령이 지난22일 제시한 「民族和合民主통일방안」에 대해『오스트리아 정부로서는 南北韓양측 당국자가 아무런 事前전제조건없이만나 對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히고『오스트리아는 이같은 對話의 再開를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지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이번 訪韓이 양국간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수확을 거두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양국은 학자및 학생상호교환、문화교류증대를 통한 협력을 아울러 증대시키기로 합의했다』고밝혔다。

파르外相은 訪韓 마지막날인 29일상오 경제기획원으로 金埈成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예방했다。

파르外相일행은 이날하오 6시 KAL편으로離韓했다。

◇돌아온 도지어准將 28일 극적으로 구출된 제임즈·도지어 美육군준장이 이탈리아의 파두아경찰서에 모습을 나타내고있다。 【파두아28일AP聯=聯】

名門大合格者 점수分布 판명

★記事 1면

「望鄕의 동산」敷地3만坪

주민金錫奎씨 高城郡에 회사

【束草=聯合】강원도高城郡縣內面大津2里9반 金錫奎씨(68)가 29일 高城郡이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망향의 동산』개발부지 3만4천2백60평을 군에 회사했다。

金씨는 高城郡이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반공교육의 산도장으로개발、새로운 명소로 개발하는『망향의 동산』이 縣內面大津里산5와 산6番地로 확정되자 이날 高城郡에 찾아가『반공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시설을 유지하는데 흔쾌히 내 땅을 바치겠다』고 3만4천여평의 땅을 회사한 것。

싯가1천3백70만원인 이땅은 金씨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데『바로 지척인 緖津里 민통선북방에있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입장으로 고향을 북에 둔 월남민들의 고통을 함께 누고자 아무런 대가없이 땅을 회사한다』고 밝혔다。

비픈 英國貿易相 來1日 한국訪問

【런던28日AP=聯】존·비픈영국무역상은 오는 2월1일부터 5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무역성이 28일 발표했다。

비픈무역상은 이번 방문중 한국및 일본 경제지도자들과 이들 나라들에대한 영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社会漫評

이태리도…

地平線

벌써 4년전인 78년5월 모로수상을 구해내지못했던 이탈리아경찰이 미국의 도지어장군을 구해내는데 성공했다。극좌테러조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결이 끝난 셈이다。그동안 이탈리아경찰은 2천여명의 병력을동원、수륙양용탱크、헬리콥터、개등 갖가지 장비를 투입해서 북부 이탈리아일대를 이잡듯이 뒤졌었다。말하자면서방측의 체면을 건싸움이었다。

▼이탈리아의 공안경찰은 도지어장군을 납치한「붉은 여단」의 핵심분자들이 2~3백명을 넘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크게 봐서 전국에 6백명쯤의 단원이 있을것이라는 추측도 있다。이들은모로수상살해이후 공안경찰의 끈질긴 공세로 한풀이 꺾인상태였다。7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탕작전에서 80년말까지 약 1백명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붙잡힌 붉은 여단의 단원 가운데에는 파트리치오·페치같은 고위간부가 있었다。「관대한 처분」과 교환조건으로 체포된 단원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경찰은「혁명행동」「3월28일여단」을 완전히 분쇄하고、붉은 여단도 빈사상태에 몰아넣었었다。80년8월 전체회의를 연 붉은여단은 조직을 줄여 재출발하기로 결정했었다한다。그러나 이때부터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이 시작됐다한다。

▼공안경찰에 의하면 납치·살해전술을 주장하는 강경파에 대해 온건파는 보다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수있는 전술을 주장하고있다한다。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붉은여단을 지지하는 시민은 겨우 9·5%였다。53·7%는「공산적 암살자」라고 비난하고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외국、특히 중동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중동지역에서도 리비아、남예멘、그리고 레바논은 붉은여단에 무기를 대주는 비밀루트로 알려져있다。한때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도 비밀루트였던 것으로 생각되고있다。마지막 배후에는 소련이 있을것이라는 짐작이다。도지어장군 납치사건이 있은뒤 이탈리아 기민당이『테러단체의 뒤에 외국세력이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사실판단에서 나온것이다。

▼이탈리아 공안경찰대장 카푸초장군은『테러리스트라는 물고기가 헤엄칠 물을 없애야된다』고 강조하고있다。이탈리아의 사회적불안이 없어져야 테러가 없어질것이라는 경고다。이번 도지어장군구출작전에는 미국「검은 안경부대」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도지어구출성공이 이탈리아의 민주제도를 지키고 테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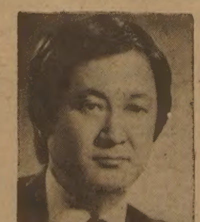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5,500 아 스 킹：$18,950 네 트：년 $120,000
렌 트：$1,000、리스5년+5년 다운페이：$150,000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렌트 $1,200、리스9년(옵션가능)、현금 $250,000Down、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렌트 $2,900、리스9년+5년、다운페이 $150,000、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렌트 $2,650、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렌트 $1,700、리스 19년、현금 12만불 다운페이、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리스9년+5년、렌트 $900、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년1000달러)
~~②주매상 $13,000、리스9년、렌트 $1,850、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리스15년、렌트 $950、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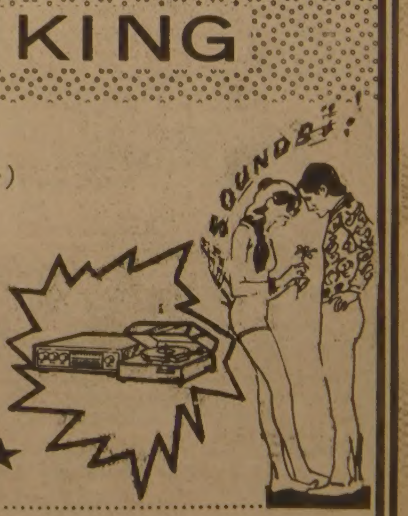
주소：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고급 라디오、전축 전문집
STEREO KING

● TELEFUNKEN (독일제품)
● SANSUI
● AIWA
● GRUNDIG (독일제품)

※비데오 취급합니다.

★ 교민께 특별봉사 ★



주소：2989 DUNDAS ST. W. (킬×던다스)
전화：766-4770 김봉훈

제1회 技術진흥擴大회의의 背景과 方向

模倣과 組立서 創造로

70年代 외형·量的성장탈피

技術革新…「第2 도약」발판

輸出戰略산업選別…국제競爭대처

과학기술계에 초비상이 내렸다。정부가 全斗煥대통령 주재로 29일상오10시 중앙청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회 技術振興확대회의를 통해 80년대 經濟社會발전을 技術주도로 이룩한다는 방침을 굳힘으로써 과학기술계는 어떤형태든 이제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직접 기여할 技術開發을 내지는 技術革新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80년대 제2의跳躍을 기술혁신을 통해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70년대 輸出드라이브정책을 통해 이룩한 제1의도약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기술개발의 成敗가 곧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있으며 기술혁신이 우리의 살길이란 현실적인 판단아래 내려진것。이는 특히 최고 통치자인 全斗煥 대통령의 지도이념이자 통치철학과도 脈을 같이 하고있어 앞으로 정부의 기술우위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갈는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기술주도의 새시대전개를위한 80년대 기술혁신의 과제와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배경〉

지금 세계는 情報化사회를 향한 제2의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해서 技術革新은 놀랄만큼 고도화되고 가속화되어 高速자동화·超精密化·小型輕量化현상이 산업전반에걸쳐 진전되고 있다。연구개발은 한층 巨大化되고 시스팀化되어 宇宙항공·原子力·해양·초대형 플랜트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이에반해 국제기술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深化되고 있어 후진국은 필요한 尖端기술을 도입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美·日의 이른바 半導體전쟁과 이에대한 EC제국의 대응책은 그 한예。

특히 브라질·자유중국·싱가포르·홍콩등 신흥공업국과 中共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대상국으로 등장하고있는 실정。

이에반해 70년대 우리의 경제는 低賃노동력、外資 그리고 단순모방의 외국기술을 토대로 경제의 양적성장을 이룩했다。技術의 발전은 이에 따르지 못했다。70년대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기여도는 고작 7%에 머물렀다。선진국의 22~32%에 비해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제품의 성능면에서도 우리의 기술수준은 精密度면에서 선진국의 17분의1에 불과했다。耐久度(선진국수준의 2·5분의1) 正確度(5분의1) 균일성(4분의1) 粗度(2분의1)등에서도 선진국에비해 크게 뒤떨어져있는 실정。

[illegible] 주력한다면 70년대 模倣과 組立에서 80년대 創意와 革新의 단계로 도약할수있게 된것이다。더우기 산업계의 조속한 기술흡수능력과 과학기술계의 우수한잠재개발능력、국민의 강렬한 성장의욕、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있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확실시된다。이번 정부가 80년대 경제사회발전을 기술주도로 이룩한다는 방침은 이같은 배경에 바탕을 둔것이다。

〈개발목표와 방향〉

기본기술개발전략은▲안으로 국가연구개발 능력을 結集하고▲밖으로 기술개발의 과감한 국제화를 도모하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핵심 전략기술을 조속히 토착화한다。

이같은 기본전략아래 産業技術개발방향은▲섬유·완구·신발류등 경공업기술분야는 제품의 고급화로 국제선투자위를 확보하고▲기계·전자·조선·플랜트등 중공업기술분야는 비교우위강화로 수출전략산업화하며▲半導體·컴퓨터·정밀화학·유전공학등 첨단산업기술분야는 選別·集中개발、내일의 기술혁신에 돌파구를 마련한다。

또▲연구개발능력과 고급인력의 부족▲기술축적과 기술정보의 빈약▲과학교육과 국민적기술기반의 취약▲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동기유발▲환경미비▲기술외적요소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자세등 기술혁신 애로요인을 타개키위해 ①연구개발활성화②기술투자확대③기술인력양성④과학기술교육강화⑤기술개발金融·稅制의보강⑥발명특허및표준제도의확립⑦정부구매와 가격제도의개선⑧경쟁원리의확산등 정책을 펴나간다。

또 기술개발을 과감히 국제화하기위해▲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연구개발단계의 선진기술도입▲해외 현지연구소 설립운영▲해외기술정보지원체제확립과 벤처 캐피탈(新技術投資)의 해외진출등을 적극추진한다。국민기술기반층을 위해선▲우수과학교사의 양성확보▲교재및 교육방법 개발▲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를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이해를 증진 그 수준을 높여 나간다。

또 기술개발지원금을 대폭확대 올해 5백억원의 산업은행기술개발자금과 2백95억원의 기술개발자금등 7백95억원을 투입하게된다。또 정부구매와 가격제도를 개선▲신기술제품의 계획구매를 확대하고▲기업의 자체 기술개발비를 原價에 반영해 주며▲정부제도를 개선 인센티브 및 장기계약제도의 확립과 신제품개발자의 入札자격부여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의욕을 적극 고취해 간다。또 우수발명가에 대한 우대조치와 아울러 발명특허의 試製品제작및 기업화자금지원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특히 특허제도의 과감한 국제화를 추진 개방체제하에서 기술개발을 자극토록 유도해간다는 것이다。【李光榮기자】

民正、選擧法 改正않기로

政黨·政治資金·言論기본法도

民正黨은 29일 각종 選擧法과 政黨法、政治資金法과 언론기본법등 立法會議에서 제정개정된 각종 政治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종래 방침을 재확인했다。

李鎭遜 民正黨 대표위원은 이날 柳致松 民韓黨총재와 金鍾哲 국민당총재가 연두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각종선거법개정문제에대해『民韓黨과 국민당은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기전에 개정되어야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할 것』이라면서『民正黨은 아직 선거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權正達사무총장은『정당법은 과거보다 정당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것으로 현재로서는 손댈부분이 없다』고 잘라말하고『선거법 역시 얼마나 잘지켜지느냐하는 운영의 妙가 더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언론기본법에 대해『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행법을 고칠 필요는 안 느낀다』면서『改革立法의 改正論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權총장은 정치자금조달과 관련하여 民韓黨이주장한 單一후원회 구성문제에도언급、『民韓黨은 黨內에 財力있는 인사가 있는데도 獨自후원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단일 후원회를 구성하자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면서『야당의 후원회가 구성되면 후원금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番制」운영은 적극 고려하겠다』고「先獨自후원회구성 後자금 공동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정당의 운영은 우선 당원들의 黨費에 의존해야하며 후원회나 國庫보조는 부수적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五輪준비 상황보고 總理 行政조정실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29일상오 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을 民正黨측에 설명한뒤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중앙청 후생관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는 정부측에서 鄭宗澤정무1장관、孫守益총리行調실장등이、民正黨측에서는 羅雄培정책위의장、李鍾贊총무、尹領淳사무차장、朴銘俊정책실장、李世基·金澈의원등이 참석했다。

全大統領 統一방안 81국 議長등에 發送

丁來赫 국회의장은 29일 全斗煥 대통령이 民主統一方案의 배경등을 설명한 弘報자료를 81개국 1백15명의 上下院 의장과 IPU(국제議會聯盟) APPU(아시아·太平洋議員聯盟) AIPO(아세안諸國議會기구)등 議會관계 국제기구에 일제히 발송했다。

丁의장은 親書형식으로된 이 資料를 통해『이번에 全대통령이 제의한 南·北韓통일헌법은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통일方案』이라고 강조하면서『복잡한 국제질서속에서 전쟁의 위험이 常存하고 있는 韓半島의 영구적 평화를 위하여 貴國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丁의장은 資料와함께 國政연설문、民主統一방안概要、통일헌법제정 국회지지결의안등을 同封했다。

尹駐佛大使 부임

尹錫憲 신임 駐프랑스대사는 부임을 위해 29일저녁 KAL편으로 出國했다。

老人憲章 제정

5월선포、10일부터 敬老우대제 실시

千命基보사부장관은 29일 대한노인회 주최 오찬에서 5월8일 어버이날을 기해 노인헌장을 제정선포할것과 노인의 연령을 현행 70세이상으로 확대하고 할인업종도 현행8개에서 13개업종으로 확대시킨 경로우대제를 오는2월10일부터 전면실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노인복지대책을 보고했다。

千장관은 또 이자리에서 경로우대 대상으로 추가된 5개업종은 국공립공원의 무료입장 이외에 박물관입장료、극장입장료와 여객선운임(카페리·쾌속선 제외)등의 반액할인과 시내버스요금의 할인요금적용 등인데 고속버스 요금할인문제는 현재협의중이라고 千장관은 밝혔다。

또 오는 3월부터 전국 市郡·區 단위마다 1명씩 2백24명의 노인복지 상담원을 배치、노인들의 고충을 상담해결하고 취업및 복지시설 알선등을 하도록하며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년 1회씩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에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매년 5월8일부터 일주일간을 경로주간으로 선포、해마다 중앙에서 2백24명、지방 4백48명씩의 효자·효부를 뽑아 표창하면서 경로사상의 대대적인 계몽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앞으로 노인적성에 맞는 직업을 개발 보급키로하고 우선 올해부터 예식장주례에 노인복지 상담원을통해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토록하며 올해부터 유료양로원과 노인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확대시키며 노인정、경로당을 里·洞마다 설치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社說

技術蓄積에 새紀元을 —그 振興擴大회의의 發足에 거는 期待

어제 全斗煥 대통령은 올부터 每分期(이번분기는 2回)마다 定例的으로 열기로한 技術振興擴大회의를 주재하고 科技處가 들고나온『80年代 기술혁신의 課題와 對策』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아울러 許민간기술연구소협회장으로 부터도『企業의 기술개발 현황과 계획』에 관한 보고를 또한 청취하였다。

정부가 80年代 경제사회발전의 核心的課題 가운데 하나로 기술개발의 긴요성에 관하여 눈을 돌리고 있음은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한것으로써 장차 우리기술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것이 기대된다。

科技處서 내놓은 기술혁신의 과제와 대책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경제가 안정을 지키면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술혁신없인 그어떤 成果인들 쉽게 이룩될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原資材및에너지절약이나 그밖에 原價절감노력에 있어서도 기술문제가 앞서가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차제에 국제수지개선과 직결되는 기술집약적 고도상품의 개발 또한 기술문제의 해결만이 관건임을 잊지말아야 할 일이다。

비단 산업부문만이 아니라 식량증산등 농업부문도 기술능력의 개발 축적없이는 발전이불가능하다。기술能力이 배양축적돼야만 노동집약사업에서 시작하여 기능집약산업으로、또 그 다음은 기술산업으로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80年代엔 최첨단 頭腦집약산업인 컴퓨터를 비롯、半導體、정밀化學、生命工學분야에까지도 독자적으로 참여할수있게 될것이다。

또한 기술축적이있어야만 公害로부터의 생활환경보전과 알맞는 交通·通信시스팀의 확립、健康·醫療및 衣食住개선등은 물론 국가안보의 강화에 이바지될 軍事用途를위한 그 활용이나 기술優位를 통한 國威선양및 文化발전에도 큰 진척이 촉구될것을 생각할때 기술진흥이 지니는 意味의 막중함을 새삼 느끼는 바이다。

美歐日같은 선진국은 지금 바야흐로 기술전쟁時代에 돌입해 있다。

실상 오늘날 科學技術能力의 뒷받침없는 경제발전계획이란 存立할수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될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그 기술축적없이는 컴퓨터 半導體같은 고도산업에는 접근조차 하기 어렵게 돼있고 조그마한 玩具제품에 이르기까지도 최신기술의 援用없이는 제값받고 팔릴수있는 物件을 만들수없는 실정이다。

半導體 컴퓨터 로보트 유전자공학 파인·세라믹 高速增殖爐등 새로운 기술의 結晶的産物들이 끊임없이 紹介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연구개발能力이나 기술축적이 없이는 뒤따라가기가 힘들뿐더러 모방과 응용조차 제대로 할수없게된다。

그나마 이제부터는 先進國으로부터 尖端기술을 돈주고 (使用料) 들여올수마저 없게 되어가고 있어 저들과의 기술적인 落差는 벌어지기만 하고 있는 反面、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도의 기술力量은 같은 경쟁국가나 後發개발국들의 필사적인 추격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存立해야할「餘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너무 늦기전에 우리의 국가적精力을 과학기술부문에 集注치 않으면 오늘現在의 落差를 좁히지 못함은 더 말할것 없고 날이가면 갈수록 그幅은 벌어지고 말것이다。

그런뜻에서 볼때 정부가 늦게서나마(이미10年前부터 했어야)기술개발의 중요성에 인식을 새롭게 하고 특히 全대통령의 발기에 의하여 每分期 단위로 기술진흥회의를 열어 거국적 관심을 모으며 기술문제를 타개하려 하고있음은 評價할만한 일이다。

바라건대 기술부문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기초과학을 포함하는 과학교육이나 민간에의한 개발연구사업에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극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해야 할것같다。특히 비록 작은것이기는 하나 品質개선과 코스트절감에 직접 도움이되는 生産現場에서의 기술적인創案이나 提案들이 인센티브(보상)제도에 의하여 채택 反映될수있도록 유도하는것도 배려하는바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政治발전과 野黨意見 —民韓·국민黨首의 年頭會見을보고

院內兩大野黨이라 할 民主韓國黨과 민주국민당의 두 黨首는 엊그제 각각 年頭記者會見을 갖고 우리 政治現實에 대한 見解를 밝히고 앞으로의 黨進路에 言及을 하였다。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나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다같이 政治秩序의 再定立을 겨누고 각종 政治관계法律의 改編을 주장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政黨存立에 있어서의 原初的인 問題들에 관해 나름대로의 우려를 나타내 보였다。그러면서 두 野黨당수는 다같이 競爭의 원리가 통하고 균형된 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政治體制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民韓黨측에서 주장하는 각종 選擧法、言論基本法의 改正문제나 국민당이 내세운 국회법、정당법등의 개정은 이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立法活動의 촉진정도로 해결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의 政治氣象圖에관한 관심이 더욱 진해진다。與黨側에서는 即刻的으로 이런「改革立法」의 改正에 反對한다는 태도를 천명하는 반응을 보이고 나온만큼 國會를 중심으로한 政黨政治의 展開과정이 눈길을 끌게하는것이다。

이런 問題에 부닥칠때마다 늘이켜보아야 할 일들이 있다。즉 政黨이 國民의 意見을 수렴하여 그 소화의「通路구실」을 하고 있는가 하는점과 政黨은「全體의 한部分」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前者는 野黨이 고려해야 할 일이고 後者는 與黨이 적용시켜 봐야할 原理的사항일것 같다。이점에 現在 빠뜨릴수 없는 한개의 恒數를 [illegible] 다。즉 새로운 政治秩序와 새로운 政治史를 모두가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는 現實의 既定方位이다。

野黨側이 새해 벽두부터 내세운 政治的法律의 改正주장이 과연 國民大多數의 與望을 반영한것인가는 野黨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할 문제라고 보며 與黨은 現實의 與件속에서 왜 이런 要求가 間歇的으로 튀쳐나오는가를 냉정히 省察하고 對應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된다。

올해의 野黨首들 會見을 통해 共通的으로 거론된 問題가운데는 政治資金의 配分에 관한것이 있다。政治資金은 다른나라의 例에서 보듯이 政黨이 利益集團과의 機能的 連繫를 두텁게 유지하고 있을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처럼 이런 基底集團의 利益聚合을 위한 制度的裝置로서 政黨이 존재하기 어려운 형편하에서는 公營化된 資金에 依存할수밖에 없게 된다。이번에 野黨黨首가 提起하고 있는「푸념」을 들어보면 역시 政治資金의「公營」에 있어 野側에 不便이 컸었던것같다。

公的으로 配分되는 資金에만 의존하고 있는 野黨으로서는 이는 직접 그 存立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더구나 우리의 風土에서 政治資金조달을 위한 後援會가 野黨측에는 形成되기 어려웠다는 指摘은 그저「弱者의 辯」정도로 흘려들을 일이 아닌것이며 柳黨首가「競爭의 原理가 保障되는 政治體制의 確立」을 가리켜 바로「政治安定」이라고 定義한말과 함께 곁들여야할것이다。

또 그가「禁慾主義」에 입각한 經濟倫理확립을 주장하고、企業들이 스스로 外債償還운동을 전개토록 촉구한점、教育行政의 획기적改革과 自律的市民文化의 개발、그리고 비판정신과 표현의 自由를 제창한것은 政策政黨으로서의 定着을 꾀하는 노력을 보인것이라 하겠다。

그와더불어 民韓黨이나 국민당이 全斗煥대통령의 새로운 對北提案에 있어서는 超黨的으로 지지하고 北韓에대해 그 수락을 촉구한것은 擧國的·民族的事案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세력이 혼연히 一體化할수있다는 姿勢를 다시한번 나타낸것으로 좋은 [illegible] 이된다。

우리의 政治體質은 아직 강인하지 못하다고 본다。따라서 政黨政治에서는 對立보다는 和合을 모색하는 가운데 與·野가 다「균형적으로 發展」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지난날처럼 對立을일삼는일 같은것은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것이다。

5分間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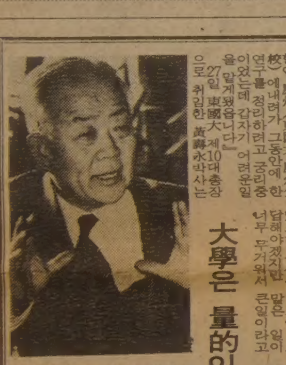
崔浩中 駐말레이지아大使

말聯에「한국 붐」…"勤勞倫理 본받자"

『요즘 말레이지아에서는 한국붐이 날이갈수록 熱度를 더하고 있읍니다。…「東亞로 視野를 돌리자」(Look East)는 정책추진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있읍니다』 [illegible]

黃壽永 신임東國大총장

大學은 量的인 팽창보다 內實기해야



『정년도 얼마 남지않아、불교에서 말하는「인연」처럼 東國大에서 반평생을 보낸 [illegible]』【李炳日기자】

人事異動

[illegible]

政局往來

'사위감도 技術者고르는 風土돼야 나라도 잘되는법'

◆어릴때부터 과학적 思考能力을 [illegible]

◆野黨도 微視的자세 벗을때됐다 [illegible]

◆요즘 野黨은 노력부족인것 같다 [illegible]

◆現大入試제도를「重病」으로診斷 [illegible]

◆前任총장들 초청 晩餐갖고환담 [illegible]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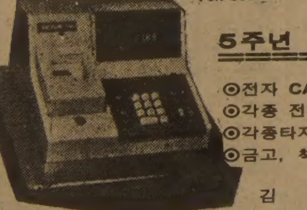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533-7966 김 영 철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악단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8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불도저 騷音이용 現場급습

— 伊경찰、도지어將軍구출 「바보들의 번개作戰」 90秒

「바보들」의 번개작전이 개시된 것은 정확히 28일 상오 11시36분。(한국시간 하오 7시36분) 바보(레더헤드)라는 별명을 가진 이탈리아의 테러진압경찰 10명은 파두아市에 있는 한 아파트의 2층 문앞에 쇄도했다。

아파트 밖에서는 이들의작전을 수월케하기위해 동원된 불도저들이 공사를 가장하여 소음을 일으키고 있었다。

얼굴에 복면을하고 방탄조끼를 입은 바보들은 요새화된 이 아파트의 자물쇠를 단 한방의 총으로 부순후 집안으로 뛰어 들었다。

바보들은 홀에서 만난 첫번째 납치범을 덮쳤으며, 이어 한 납치범이 조강복을 입고있는 도지어장군의 머리에 소음총을 들이댔으나 그도 방아쇠를 당길 틈도 없이 달려든「바보들」에 의해 바다에 나뒹굴었다。

경찰이 나머지 납치범 3명을 마저 체포하고 텐트속에 갇혀있던 도지어를 구출한데까지 걸린시간은 모두 90초。 단 한발의 총성도 나지않은 전광석화같은 작전에 5명의 납치범들은 저항한번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대경실색할 뿐이었다。

도지어장군에 총을 겨눴던 납치범은 경찰이 휘두른 총에 머리를 맞고 부상,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머리에 銃口댄순간 곤봉으로쳐
손발묶이고 눈가린채 텐트속에
구출직후 "따끈한 코피한잔 생각"

아파트 방안에 설치된 텐트속에 갇혀있던 도지어장군은 맨발에 눈이 가린채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텐트격리는 인질이 납치범과 주변상황을 알지못하도록 하기위해 붉은여단이 흔히쓰는 수법이다。

도지어장군은 구출순간「훌륭했다。경찰」이라고 말하고『이제 따뜻한 코피한잔이 생각나는군」이라고 말했다。

도지어장군은 이어 한납치범이 권총을 머리에겨눌때는 『이제 마지막이구나』하고 생각했다고 구출소감을 말했다。

匿名의 提報 결정적
대낮틈타 총한발 안쏘고 凱歌

경찰이 도지어장군의 감금장소를 알아낸 것은 사흘전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였다。

경찰은 그이전부터 도지어장군을납치한 붉은여단이 납치장소인 베로나市에서 멀리가지 못했을것으로 추정하고 베로나市와 베로나 서남쪽75㎞의 파두아市사이를 집중수색해왔다。

경찰은 제보에따라 유서깊은 古都파두아市의 외곽에자리잡은 이아파트를 집중감시하기 시작했다。

이아파트는 1층에 슈퍼마킷이있고 방이 64개인 근대식아파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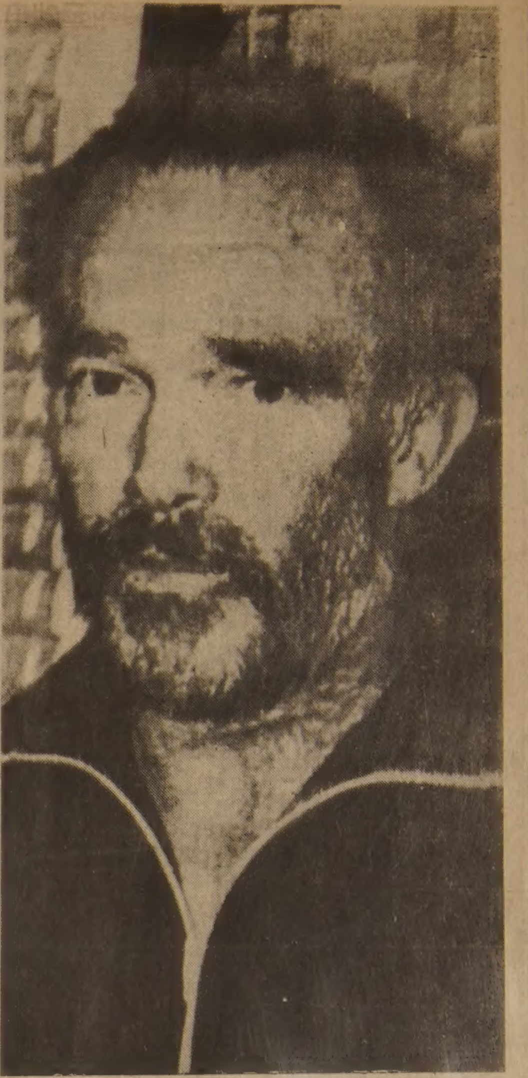
경찰은 이 슈퍼마킷의 손님틈에 섞여 2층아파트의 출동정을살피고 납치범들의 출입을 체크했다。

경찰은 27일 마침내 이 아파트에 도지어장군이 감금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조용히아파트주변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야간작전을 감행한 경우 도지어장군이 다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 작전을 다음날 낮으로 미룬것이다。

경찰은 아직 어떻게 납치범들이 눈치를 채지않게 아파트에 접근했는가를 밝히지 않고있는데 미국의 소식통은 『미국이 구조작전에 직접간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지원역할만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파두아(이탈리아)=聯合】

◇기쁨에 싸인 도지어家族들 28일 석방된 제임즈·L·도지어 美육군준장의부인 주디스여사(49)와 딸 체릴·도지어소위가 이탈리아경찰에 의해 도지어장군이 구출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군의 사진을들고활짝 웃고있다。【프랑크푸르트28日AP=聯合】



◇수염 덮수룩한 도지어將軍 이탈리아경찰에의해 28일 피납42일만에 구출된 제임즈·도지어美육군준장。긴수염과 맨발에 조깅복을 입고있었다。【파두아(이탈리아) 28日UPI=聯合】

家族 감격의상봉

【비첸자(이탈리아)29日AP=聯合】이탈리아의 「붉은여단」에 납치됐다가 42일만에 구출된후 美육군병원에 입원한 제임즈·도지어 美육군준장은 28일밤(현지시간) 병원에서 부인 주디드 여사및 딸 채릴양과 감격의 상봉을 했다고 美軍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도지어장군부처와 채릴양이 서로 껴안았으며 이때 부인과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도지어부인과 채릴양은 도지어장군이 구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독에서 이탈리아에 급히 도착했는데 이날 병원내 도지어장군병실에는 보도진 출입이 일체 통제됐다。

일부 납치범못잡아

○…이탈리아 정부는 도지어장군 납치범중 수명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밝히고 붉은 여단이 또 테러를 저지를지 모른다고경고하여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外部支援없이 犯行

○…미국무성 관리들은 붉은여단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소련에서 무기를 공급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도지어장군 납치는 외부지원없는 붉은여단만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경찰이 공개한 2명의 붉은여단 테러분자모습。왼쪽은안토니오·사바스타、오른쪽은에밀리아·리베라로이들이밝혀졌다。【로마28日UPI=聯合】

맨먼저 수염깎아

○…도지어장군이 석방된 뒤 우선 하고 싶었던일은 6주동안 면도를 못해 더부룩한 수염과 긴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이발하는 일이었다。

重火器로 武裝·僞裝術도 뛰어나
도지어救出수훈 伊特攻隊

『원더풀! 폴리스』도지어장군은 자신의 구출작전에 경탄했다。

방탄조끼에 복면을 한 일명 「얼간이」10명은 90초동안에 번개같이 해치웠다。

이들 이탈리아경찰 특공대원은 내무성산하의 테러진압대소속 특수비밀공작요원들이다。

이탈리아내무성은 지난78년3월 모로前수상이 「붉은旅團」에 의해 피납·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도시게릴라들의 테러를 뿌리뽑을 목적으로 산하에 중앙보안기동대(NOCS)를 창설, 특수요원들을 양성해 왔다。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작전시에는 여러가지의 위장복장을 하며 복면이나 방독면을 착용, 철저히 신분을 숨긴다。

사격·무술등 테러진압을 위해 특수훈련을 받은 이들 특수요원은 이번 도지어납치사건과 같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때는 수륙양용차 바주카포를 비롯, 중화기까지 동원한다。

NOCS특수공작요원의기구편성및 인원수는 극비로하고있다。

모로前首相 피살후 집중養成
테러 1차공격목표로 受難도

테러진압특공대는 모로前수상이 살해된후 붉은여단·前線등 도시게릴라단체에 대한 일대 소탕작전을펴 3천여명의 테러용의자들을 검거했다。특공대원들은 반항하는 테러리스트는 사살을 원칙으로하는등 잔인한 정도로 강경책을써 바보들이란 별명이 붙어있다。

이들은 지난80년12월 좌익테러범복역수들이 형무소내에서 대규모폭동을 일으켰을때 헬리콥터로 감옥지붕에투입, 칼과 폭약으로 무장한70명의 죄수들을 진압하고 인질로 잡혀있던 간수18명전원을 아무런 희생없이 구출해내 이미 명성을 떨친바있다。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지만 특공대원들은 항상 테러범들의 1차적인 공격목표가 되고있다。

지난6일에는 로마의 테러진압특공대의 시모네부반장이 테러범들에게 저격당하기도 했다。

이번 도지어장 군납치사건의 해결에는 美CIA요원들이 직접 작전에 참가한 것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지난9일 로마에서 체포된 거물급테러리스트인 前범죄학교수지오반니·센자니가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준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지어사건에는 42일간 5천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崔海雲기자】

터키總領事 피살
駐LA 승용차로 出勤중 괴한2명에

【로스앤젤레스29日UPI=聯合】카말·아리칸 미국로스앤젤레스주재 터키총영사가 29일 새벽3시께(한국시간) 승용차를타고 출근도중 2명의괴한으로부터 10여발의 권총사격을받고 사망했다고 로스앤젤레스경찰이 발표했다。

댄·쿠크 로스앤젤레스경찰 부국장은 약 3년전 미국에 부임한 아리칸총영사가 이날 자택을 나와 외교관번호판이 달린 포드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사무실로부터 20블록떨어진 로스앤젤레스 서부 윌셔路의 모터리·클럽부근에서 신호대기중 갑자기 양쪽 차창으로 다가온 2명의 괴한들로부터 권총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있은지 수분후 아르메니아집단학살정의특공대원이라고 자처하는 한 괴한은 UPI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아리칸총영사 저격사건이 자신들의소행이라면서 이로써 자신들은 모두 14개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살사건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2명의 남자가 양쪽 차창쪽으로 다가가 권총을 난사했다면서 총격후에는 아리칸총영사의 車가 서서히 전진해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근처의 가로수에 부딪쳐 멈추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총격을 가한 범인들이 18~21세가량의 짧은머리를한 청년들로서 목동차림의 옷을입고 있었으며 사전후 곧 주택가쪽으로 도망쳤다고 전했다。

◇권총세례맞은 터키總領事 29일 새벽(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우드 구역에서 2명의 아르메니아 게릴라들로부터 권총세례를받아 피살된 카말·아리칸 로스앤젤레스 주재 터키 총영사。【로스앤젤레스28日AP=聯合】

南部 레바논서 流血衝突
回教民兵隊·레바논 팔聯合세력

【나하리야(이스라엘)28日UPI=聯合】남부 레바논지역에서 28일 시아派회교민병대와 이라크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팔레스타인연합세력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11명이 사망했다고 유엔평화감시군(UNIFIL)의 한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 경쟁세력간에 박격포、對전차포、로키트포가 동원된 격전이 벌어져 유혈충돌지역에 유엔평화감시군 증원병력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中共、韓美훈련參觀 거부의사

【北京29日AP=聯合】중공정부는 29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23일 내놓은 팀·스피리트 韓美합동군사훈련 참가제의를 거부할 의사를 비쳤다。

중공외무성 대변인은 기자질문에 답변하는 성명을 통해 『이문제는 南北군사정전위원회에서 미국측대표가 제안한것으로 우리가 제공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성명이 곧 중공이 이제의를 거부한다는 뜻인지、또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접촉을 가졌는지 판문점을 경유해서 제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요르단、이라크 支援
후세인王 "특별부대 직접지휘"

【암만28日AP=聯合】후세인요르단왕은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하기위해 지원병으로 구성된 특별부대를 창설하여 자신이 직접 이부대를 지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후세인왕은 TV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야무크軍』으로 불리게될 이라크지원부대에 요르단인의 많은참가를 촉구했다。

그는 요르단은 이라크를 단순한 감정적차원에서만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야무크軍은 아랍헌장정신과 아랍국 상호방위결의에 의거해서 창설되었다고 밝혔다。

百여人質 모두석방
콜롬비아機 납치극

【칼리(콜롬비아)28日UPI=聯合】콜롬비아의 에어로탈항공소속 보잉727국내선여객기 한대를 공중납치、보고타서남방 3백22㎞지점의 칼리에 강제착륙시킨뒤 승객과 승무원 1백27명을 억류한채 인질극을 벌여온 좌익『4월19일운동』(M—19)게릴라들은 일부 인질석방에 이어 28일 나머지 인질 80명을 모두 석방한후 콜롬비아정부당국이 제공한 자가용비행기를 타고 中南美 모처로 떠남으로써 82년 첫항공기납치극은 사건발생 24시간만에 막을 내렸다。

日本經濟新聞사장 오오노끼氏 別世

【東京29日=宋孝彬특파원】일본신문협회회장이며 日本經濟新聞사장인 오오노끼(大軒順三·사진)씨가 28일 하오10시 심근경색증으로 東京 국립병원의료센터에서 별세했다。향년70세。

일본시즈오까(靜岡)출신인 오오노끼씨는 1934년 와세다大정경학부를 졸업한뒤 일본경제신문의 前身인 中外商業新聞에 입사、지난76년에는 일본경제신문사장으로 취임했고 79년부터는 일본신문협회제11代회장을 역임하는등 일생을 언론계에 투신해왔다。

半自動 국제電話 내일、4회선증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오는 31일 0시를 기해 韓佛간 반자동 국제전화 4회선을 증설、개통 운영한다。

醫保基金 착복한 40代 郡職員구속

【大田=聯合】충남瑞山경찰서는 29일 영세민의료보호기금지출결의서를 2중으로작성、1천2백여만원의 기금을 착복한 前瑞山군청 복지계직원 洪榮秀씨(46)를 업무상 횡령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

海外토픽

加州知事 出馬선언
★黑人첫市長 브래들리씨

텍사스의 가난한 집안태생으로 흑인최초의 로스앤젤레스시장이 된 톰·브래들리씨는 캘리포니아주지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최근 선언。

정치적으로 중도주의를 표방해온 브래들리시장(64)은 민주당으로부터 지사후보지명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주지사로 당선되는 경우 미국 최초의 흑인지사가 되는 셈이다。

80년 지미·카터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후보지명전을 벌이기도한 제리·브라운현주지사는 미상원진출을 꾀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聯合】

여분胎兒 냉동보관
★不姙女人에 나눠줄計劃

사상최초로 시험관아기를 탄생시켰던 英國의 패트릭·스텝토—로버트·에드워즈의료組는 여분의 胎兒를 냉동시켜 두었다가 아기를 원하는不姙여인들에게 이를 나누어줄 계획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오는2일 방영될 한 TV의 「시험관 폭발」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이 계획은 즉각 英國의료협회산하 윤리위원회와 유산반대압력 단체인 「생명」으로부터 즉각 비난을 받았는데 마이클·토머스 의료협회위원장은 『의술이 도덕을 제치고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런던=AP】

南北韓 긴장완화에 스즈끼、日기여希望

【東京28日=聯合】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은 28일『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위해 일본정부가 南北韓의 긴장완화에 기여할수있는일이 있다면 협력을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정부로서는 南北간에 실질적인대화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열린 衆·參議院본회의에서 對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韓日양국간의 실무자회담에서 원만한 절충이 이루어지는대로 외상회담을 통해 해결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韓半島유사시에 대비한 美·日간의 極東有事時연구가 韓·美·日3국간의 집단자위체제를 구축하려는 연구는 아니라고 말했다。

메아리
民統協 성명

民族統一協議會의 千寬宇의장은 28일 對北韓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統一憲法制定제의에 北韓이 否定的태도를 취한데대해 「大悟각성」하고 姿勢를 是正하여 우리와의 대화에 나오라고 거듭 촉구하였다。

北韓이 우리측 統一提議를 거부한뒤 국내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온 반응들도 거의다 平壤측이 이제라도 이번 제의에 흔연히 동의하고 나서라는 요구를 담고있었다。

問題는 北韓의 「大悟각성」이다。 그들이 각성할수있느냐하는것과 과연 어느만큼 각성할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다 아는바와같이 北韓은 對南革命赤化노선을 그대로 견지하고있다。 따라서 이런 혁명 노선을 깨끗이 버리고 우리측 平和統一주장에 호응하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된다。

東·西獨간에 基本關係에 대한 協定을 맺을수 있었다는 事實—他山之石이라고도 할 이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의 해답을 찾을수 있다。 理念과 體制가 다른 두 分斷地域間에 現實打開와 現實的存在樣式을 정립하는 合意到達이 가능했다는 충분한 先例가 이것이 아닐까?

물론 우리의 7·4남북공동성명도 이런 합의의 한예로 지적할수있으나 北韓측이 遵守하지않고 있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記錄이상의 별의미가 없게되어 버렸다。

共産側이 暴力革命戰術을 포기하고 相對方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또하나의 예로는 1937년 제2차 「國共合作」을 들수있다。 中共側은 그때 國民黨側과 合作하기위해 國民黨정권을 파괴하는 일체의 폭동、赤化정책을 포기하고 소비에트政府를 취소하여 民權政治를 실현함으로써 全國的政權統一에 기여한다는것을 「선언」으로 공표하였다。 북한으로 말한다면 대남적화 혁명전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것과 같다。 물론 中共은 나중에 뒤돌아서서 이런 소리를 헌신짝 같이 버렸지만—。

또 하나의 예는 최근의 유러 코뮤니스트들이다。 1975년3월 마드리드에 모였던 佛·伊·스페인3국의 共産黨서기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산주의의 기본노선이 되어온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獨裁主義」를 포기하며 議會制度와 複數政黨制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공산주의의 중대한 軌道수정이었다。 이에서 발단하여 최근에와서는 伊·蘇共産黨간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지경까지 발전해 버렸다。

여하간 北韓이 현재의 기본자세에서 「대오각성」할 여지나 가능성은 이런例를 통해 볼때 아직 남아있다는 데서 「民統協」의 성명은 의의가 컸고 또 희망적인것이라 할수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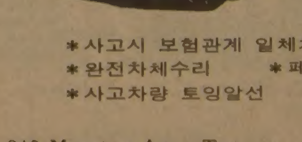
캐나다·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읍니다

南北美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50만 北美교포의
친근한 벗입니다.

구독신청,광고문의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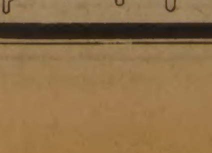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완벽한 기술과 친절한 써비스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완전차체수리 *페인팅
*사고차량 토잉알선

346 Munster Ave. Toronto



오 세 호
(B)231—6951
(R)742—5406

서울大·私學명문大 격차深化

學力考査300점이상 得點者거의 獨占

8백27명중 7백58명 차지 2백90점이상도 85.7%나

서울大、延世大、高麗大등 전기명문대학의 합격자 사정결과 서울大가 학력고사고득점자를 예상보다 훨씬 더많이확보、3백점이상득점자를 거의독점했으며 그 결과 서울大와 사학명문대간의 격차가 예년보다 훨씬더 심화된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학과의 성적분포도 상위점수와 하위점수간에 난조현상을 빚어 인기학과의 합격선이 비인기학과보다 낮아지는등 예상합격선이 전혀 무의미한것으로 나타났다。합격자발표결과 서울大는 학력고사 3백점이상을얻은 수험생 8백27명중 91·7%인 7백58명、2백90점이상자 2천70명중 85·7%에 해당하는 1천7백96명을 각각 확보해 고득점자 거의전부를 흡수했다。이에반해 延世大의 최고인기학과인 인문계경영학과와 자연계의예과는 예상보다 커트라인이 50점이상떨어졌고 高麗大는 학력고사 2백95점이상의 합격자가 법대2명、경영대、정경대、의예과 각1명으로 모두 5명에 불과한것으로 알려졌다。

성적분포 亂調…예상 合格線무의미

특히 서울大내에서도 법대와 의대에 고득점자들이 대거 몰려、법대는 3백점이상이 3백9명으로 전체합격자의 85%나됐고 커트라인역시 예상됐던 2백93점보다 5점이나높은 2백98점으로 나타났다。

서울大 의예과도비슷해 3백점이상이 1백80명、커트라인은 2백96점으로 나타났다。

서울大와 高麗大 延世大간의 이같은 심한격차는 올해 입시에서 택한「2개大지원、3지망허용」에따라 많은 고득점자들이 서울大와 두사립大의 경쟁률이 낮자 대거서울大로 몰린결과로 보인다。

한편 같은학과내에서도 합격자간의 점수격차가 두드러져 서울大자연Ⅰ의 경우 3백10점대와 2백점미만이 나란히 합격했고 高麗大는 경영대에 2백97점이 있는가하면 1백60점대도 합격、무려 1백30점의 점수격차를 보였다。

延世大 역시 인문계열중인기학과인 경제과에 1백70점대가 합격했는가하면 경영학과에는 1백50점대까지 합격한것으로 나타났다。

눈치싸움과 배짱지원으로 일어난 이같은 현상때문에 예상 커트라인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인기학과가 비인기학과에 비해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서울大가 학력고사 고득점자를 독점하고 高麗大·延世大등이 고득점자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같은결과는、2개大지원、제3지망」이 허용되는한 내년에도 계속될수밖에없는 현상으로 이른바 대학간의 서열을 더욱 뚜렷이 하면서 전체대학을 피라미드型구조로 완전고정시키게될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동일학과내 합격자의 성적분포까지 심한 양극화현상을 빚어 우수학생과 배짱지원자가 한교실에서 배워야하는데 따른 갖가지 대학수업상의 문제가 예상되고있다。

대학간의 격차심화、예상외로 많았던 배짱지원자문제는 현입시제도가 낳은 또다른 부작용이며 특히 서울大가 고득점자를 완전독점하는 현상은「2개大복수지원제」의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있다。

7개大、4백86명募集

효성·淑明女大등 2次 銓衡

嶺南·朝鮮·漢陽·建國·慶熙大

문교부는 29일 전국61개4년제전기대학중 2차전형을 실시키로 확정한 대학은모두 7개대학이며 충원예정인원은 4백86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慶熙大 1백85명、漢陽大 30명、建國大 10명、淑明女大 70명등 4개대학에 2백95명이고 지방은 嶺南大 80명、朝鮮大 50명、효성여대 61명등 3개대학에 1백91명이다。

2차전형을 실시키로 확정한 전기대학및 미달학과 충원인원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충원예정인원)

▲慶熙大(1백85명) =국어、영어、법학、행정、정치신문、경상、이학、치의예、기계공、화학공학과 ▲漢陽大(30명)=법학과 ▲建國大(10명) 忠州분교의 가정관리、의상학과 ▲淑明女大(70명)=영어、물리、경제학과등 ▲嶺南大(80명)=수학、의예、금속공、가정、식품、의류학과 ▲朝鮮大(50명)=의예、이학계열 ▲효성여대(61명) 수학、생물、화학、작곡、관현악과

障碍者라고 "不合格"

成大 합격권 具滋權군 面接서 脫落

成均館大 약학과를 지망했던 具滋權(21·부산東萊高)은 학력고사점수로는 충분히 합격권에 들었으나 지체부자유자란이유로 학교측이 면접에서 불합격시킨것은 부당하다고 학교측에항의、말썽이 되고있다。

具군은 학력고사점수는 2 63점으로 충분히 합격권에들었으나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제대로 쓰지못한다고불합격됐다는것。

학교측은 具군이 약학과커트라인인 2백33점선에는들었으나 실험 실습이 필요한 약학과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있어 정밀신체검사와 신체검사위원회의동의를 받아 불합격시켰다고 말했다。

合格者發表누락 정정소동

淑大體育교육과 脫落者처리 苦心

淑明女大 체육교육과에 지원했던 朴숙희양(18·正義여고졸)은 지난26일 학교측의사무착오로 불합격으로 잘못 발표돼 학교측이 뒤늦게 합격시키는 소동을 빚었다。

이같은 사실은 학력고사성적 1백88점에 내신8등급인 朴양이 자기보다 성적이 뒤떨어진 친구 李모양(19)이 같은과에 합격됐는데도 자신이 떨어진것을 이상히여겨 28일 학교측에 항의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체육교육과 모집정원 65명 전원을 선발、합격발표한 학교측은 朴양 대신 탈락시켜야할 수험생의 처리문제로 고심하고있다。

29일 학교관계자는「추가모집때 탈락대상학생을 다른학과로 전과시키는 방법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어제 올해첫班常會

올들어 첫 반상회가 29일 하오7시30분 전국에서 열렸다。

이날 반상회는 全斗煥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3대 부정심리의 추방문제와 야간통금 해제에 따른 질서의식고취등을 주의제로 다뤘다。

특히 이날반상회에서는 각부처장·차관이 서울의영세민지역、서민아파트、상업·공장지역의 반상회에 참석해 시민과직접대화를나누었다。

乘車거부하면 犯則金 3만원

각종 交通위반 罰則 대폭强化

飮酒운전 2회 免許취소

3월1일부터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내는 범칙금이 오는 3월1일부터 평균 50% 인상된다。

내무부가 29일 마련한 교통법규위반 처벌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지르기·승차거부등에 대한 범칙금은 현재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운전자 적성검사미필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6% 올리는등 41개 교통법규위반사례에 대한 범칙금을 평균 50%선으로 인상키로 했다。(별표참조)

또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음주운전자에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을 현행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한편 행정처벌대상이 되는 교통법규위반행위도 현행18개에서 28개로 10가지를 추가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자의 경우 1회적발때 행정처벌점수가 60점(면허정지 1일 1점)에서 90점으로강화돼 가벼운 위반행위가 단 두차례 겹칠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와함께 교통사고다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크게 강화▲버스의 경우 20명이상 사망자를 냈을 경우 해당노선의 면허를 취소하고、3명이상의 사망자를 낼경우 당해 차량을 감차처분하고▲택시와 화물차는 2명이상 사망자를 냈을때는 해당차량을 감차처분하도록 했다。

◎범칙금액표

※단위千원 ( ) 안은 현행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보통자동차 (16인승이상)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보통소형)
▲신호또는 지시에따른 의무위반	(20) 30	(20) 30
▲통행금지또는 제한위반	(10) 15	(10) 15
▲혼잡완화조치위반	(15) 20	(15) 20
▲중앙선침범등 통행구분위반	(20) 30	(20) 30
▲지정차선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포함)		
가. 6대도시	(15) 20	(15) 20
나. 기타지역	(10) 15	(10) 15
▲통행우선순위위반	(5) 7	(5) 7
▲제한속도위반		
가. 속도위반10K/H이하	(7) 10	(7) 10
나. 속도위반30K/H미만	(15) 20	(15) 20
다. 속도위반30K/H이상	(20) 30	(20) 30
▲횡단·회전·후진위반	(10) 15	(10) 15
▲안전거리미확보 (급제동포함)		
가. 일반도로	(5) 7	(5) 7
나. 고속도로	(20) 30	(20) 30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가. 6대도시	(10) 15	(10) 15
나. 기타지역	(5) 7	(5) 7
▲앞지르기방법위반	(20) 30	(20) 30
▲앞지르기금지위반	(20) 30	(20) 30
▲궤도건널목통과방법위반	즉심으로법개정 (20)	(20)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0) 15	(10) 15
▲직행및우회전차의진행방해	(10) 15	(10) 15
▲교차로또는그부근의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20) 30	(20) 30
▲긴급자동차에대한피양및일시정지위반	(10) 15	(10) 15
▲서행.일시정지위반	(15) 20	(15) 20
▲정차위반		
가. 6대도시	(5) 10	(5) 10
나. 기타지역	(3) 5	(3) 5
▲주차위반		
가. 6대도시	(10) 15	(10) 15
나. 기타지역	(5) 7	(3) 5
▲주차·정차방법위반		
가. 6대도시	(10) 15	(5) 7
나. 기타지역	(5) 7	(3) 5
▲정차·주차위반에 대한조치불응		
가. 6대도시	(15) 20	(15) 20
나. 기타지역	(10) 15	(10) 15
▲제차의 등화점등 또는조작불이행 가. 일반도로 나. 고속도로	(10) 15	(10) 15
▲제차의 신호불이행		
가. 일반도로	(10) 15	(10) 15
나. 고속도로	(20) 30	(20) 30
▲경음기 불사용또는 사용제한위반	(5) 7	(5) 7
▲승차및 적재제한위반		
가. 정원초과 1/10초과	(15) 20	(10) 15
나. 적재초과 1/10초과	— —	— —
▲견인제한위반	(5) 7	(5) 7
▲도장및표지제한위반	(5) 7	(5) 7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포함)	(15) 20	(15) 20
▲운전자준수사항		
가. 흙탕물등튀게하는행위	(5) 7	(5) 7
나. 어린이맹인등의보호위반	(20) 30	(20) 30
다. 보행자통행방해	(15) 20	(15) 20
라. 안전지대에서서행위반	(5) 7	(5) 7
마. 화물적재등조치위반	(15) 20	(15) 20
바. 운행정지시조치불이행	(10) 15	(10) 15
사. 승객의승하차시안전조치위반	(15) 20	(15) 20
아. 2륜자동차의 인명보호장구미착용운행	— —	— —
자. 시도고시위반		
①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자가용영업행위	(20) 30	(20) 30
②기타고시위반	(10) 15	(10) 15
▲교통안전교육미필	(5) 7	(5) 7
▲통행방법위반 (고속도로)	(20) 30	(20) 30
▲지정속도위반 (고속도로)		
가. 10K/H이하	(10) 15	(10) 15
나. 30K/H미만	(15) 20	(15) 20
다. 30K/H이상	(20) 30	(20) 30
▲횡단등의금지위반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	(20) 30	(20) 30
▲주정차금지위반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	(20) 30	(20) 30
▲고속도로진입위반	(15) 20	(15) 20
▲고장등의경우조치불이행 (고속도로)	(20) 30	(20) 30
▲고속도로운행시좌석안전벨트미착용운전자	(5) 7	(5) 7
▲운전자특별준수사항위반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	(15) 20	(15) 20
▲적성검사미필	(3) 5	(3) 5
▲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불이행	(10) 15	(10) 15
▲면허증반납불이행		

아파트 2重매매

4億臺사취 30代 會社代表 영장

【大邱=聯】大邱南部경찰서는 29일 아파트를 건축、2중매매로 4억5천여만원을 사취한후 거래은행에 2억5천여만원의 부도를 내고 달아났던 大邱市東區新岩3洞209의60 반도주택회사 대표 金世珍씨(38)를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79년3월 자본금 2천만원으로 반도주택을 설립、지난해 1월 大邱市南區鳳德洞에 1백42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한후 1가구에 은행융자를 제외 2백만~3백만원에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張모부인(40·반도아파트A동101호)것을 포함 24가구분의 아파트를다른사람에게 가등기해주고돈을받거나 다시매매해 4억4천9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金씨는 또 지난80년부터 한국주택은행 공평동지점과 大邱은행 대현동지점에 당좌를 개설、거래해 오던중 지난연말 2억5천여만원의 부도를 낸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大 최연소合格 봉영채君에 장학금

【全州=聯合】전북 애향장학재단은 29일 최연소자로 서울대학교 공대에합격한 봉영채군(15·高敞高)에게 1년간 공납금1백만원과 1년간 하숙비80만원등 1백80만원을 전달했다。

봉군은 노점채소상을 하는 편모 탁순임씨(60)와 살면서 어렵게 공부해왔는데 봉군은高敞高에서3년동안줄곧수석을차지해온모범생이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零下14度…중무장에도"추워" 서울지방의 수은주가 영하 14도1분으로 내려가 올들어 최고의 추위를 기록한 29일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다。두툼한방한복으로 중무장을하고 얼어붙은汝矣島샛강으로 스케이트를 타러나온 어린이들은 날씨가 워낙춥자 스케이트타는것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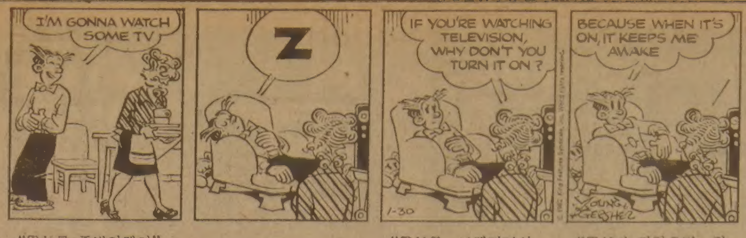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정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회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TV를 좀봐야겠어" —쿨— "TV를 보겠다면서, 왜 TV를켜지않죠?" "TV가 켜있으면 잠이 오지않아서 그래"

醫學協會, 종합學術大會 贊反양론

臨終 본인에게 알려야 하나

죽음(臨終)을 앞둔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나. 이같은 문제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말할것없고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도 망설이게 되는 어려운 일가운데 하나로 되어있다. 대한의학협회(회장 文太俊)는 이같은 문제를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제23차 종합학술대회 패널토의 의제(臨終환자요법)로 선정(◆閔丙根서울大교수, 토론◆閔丙哲 新英병원장 ◆金聖權서울大교수)로 올려 관심을 모았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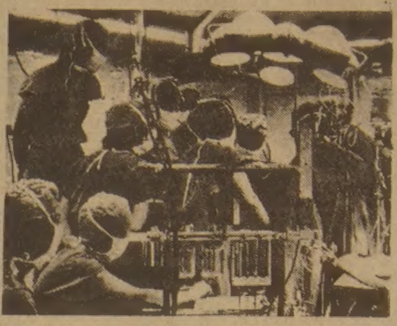
찬성 眞實을 알 權利…殘務처리에 도움

反對 不安·우울助長…勇氣 잃게할 우려

환자따라달라…알릴땐 反應봐가며 스스로 묻게해야

◆찬성=환자 자신이 진실을 알기 바라고 있고 환자는 알 권리가 있다. 진실을 알렸을때 환자는 인생의 잔무를 처리 할수 있다. 또 숨겨 보았자 결국 진실을 알게된다. 진실을 알렸을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 할수 있고 환자는 체면을 잃지 않고 죽을수 있다.

◆반대=죽는다는것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어려운 문제이다. 잘못 알렸다간 환자가 극도의 불안과 우울로 절망하게 되고 …


◇환자 가족은 물론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한다.

수술을 한이후 첫대면에서는 「수술이 잘되었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반응을본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때 직접적인 질문을 할 용기를 잃고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가족들에게 진실을 접적인 방법으로 물어 온다. 하지만 환자는 마지막 한가닥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 …【李光東기자】

TV 시민法廷 첫등장

KBS2TV 30일부터

出演者, 각계 有名人士로 구성

被告는 社會의 「무질서·不條理」

市民의식 生活속 뿌리내리게 시도

◇검사역 黃山城여사

◇변호사역 金宇鍾씨

재판정이 TV에옮겨진다. 검사가 논고를하고 변호사가 변론을하며 증인이 소환되고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린다. 또 방청객은 재판을지켜본다. 실제의 재판정과 다른것이 있다면 피고가 특정인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시민의식이나 질서등 사회상과 관념이라는 것과 복장이나 용어가 재판정과는 달리 자유스럽고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다는점. 그리고 배심원제도가 우리에겐 낯설다는 것뿐이다. 검사의 기소와 증인신문, 준엄한 논고, 변호사의 증인신문과 변론, 배심원들의 합의평결등 실제의 재판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

KBS 제2TV가 마련한 「시민법정」이다. 30일부터 매주 土요일 하오9시~9시40분 안방에 배달된다. 사회의 무질서나 부조리를 재판하여 88년올림픽을대비한 우리의 생활자세를 점검해본다는 취지다.

국회의원겸 변호사 黃山城여사가 검사로, 문학평론가 金宇鍾씨가 변호사로, 그리고 아나운서 金東鍵씨가 재판장으로 출연하고 작가 朴範信씨, 의학박사 金思達씨, 시인 朴賢鈴씨, 노총부녀부장 金근화씨, 만화가 高羽榮씨등 5명으로 배심원을구성한다.

이TV시민법정의 첫 피고는 「줄서기」. 검사의 기소이유는 「줄서기는 한국적인 현실이나 전통과는 맞지않으며 우리들의 질서의식이 있는데 「줄서기」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된 평등」이다」라는것. 이같은 검사의 논고에 이어 증인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이에대해 변호사는 「그래도 줄을서는 것만이 우리사회의 질서의식을 고쳐나가는 길」이라며 변론을 펴고 5명의 배심원에 의해 평결을 받는다.

증인으로는 주부, 교수, 작가, 학생등 각분야의 사람들이 소환되며 택시정류장에서의 줄서는 현장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

앞으로 화투, 교복자율화, 프로권투 세계타이틀전등 시민의식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피고석에 서게 된다.

이프로그램의 연출자 申完秀씨는 「시민의식과 질서를다루되 정면으로 다뤄 강요하듯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느끼게하려는 시도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을 맡고있는 KBS 金道鎭교육국장은 「『시민의식제고』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시민의식이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데 뜻이있다」고 말한다. 【彦】

할렐루야팀 2위

홍콩蹴協 초청축구

【홍콩28日=聯】한국프로축구팀 할렐루야는 28일 홍콩스타디움서 열린 홍콩축구협회초청『4強戰』마지막경기에서 오스트리아 빈의 멤피스팀에게 1-0으로 패해2위를 차지했다.

할렐루야팀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시작5분만에 코너킥이 헤딩골로 연결되는것을허용한후 후반에서 여러차례의 슛찬스를 맞았으나 만회하지 못했다.

이날 우승한 멤피스팀은 1만9천달러의 상금을 받으며 할렐루야팀은 9천5백달러를 받는다.

크랩트워크 頂上에

★…유럽 록 밴드중의 하나인 크랩트워크의 「The model」이 이번주 영국 싱글 레코드 베스트텐의 톱을 차지했고 지난주 1위의 「The land of make believe」는 3위로 처졌다. 【AP】

한국無敗…準決에

쿠웨이트 핸드볼

【쿠웨이트28日=聯】韓國은28일 쿠웨이트에서 속개된 제2회 국제친선핸드볼 선수권대회 예선3차전에서 바레인을 26대24로눌러 예선전적3戰全勝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전반을 14대12로 리드한韓國은 오는31일의 준결승전을 염두에두고 여유있게 후반경기를 운영했다.

이날 경기에서 韓國의 姜德壽(全北大)는 7골을 넣어 최다득점을 기록했으며 林英哲·姜泰求(이상圓光大)는 각각 6골을 넣어 韓國승리에 수훈을 세웠다.

國體 아이스하키

제63회 전국체전동계빙상대회 예회식에와서 東大門 링크서 벌어진 아이스하키

키대학부 결승전에서 高麗大는 금년시즌들어 두번째격돌한 延世大와 5-5로 비긴후 행운의추첨으로 우승, 지난번 KBS盃대회 우승과함께 2冠王의 영예를 차지했다. 延世大는 KBS盃대회서도 高麗大에 석패, 延·高 아이스하키대결서 2연패당했다. 고등부서는 在캐나다팀이 중등부서는 景城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
▲대학부
고대 5 (2-2 2-1 1-2) 5 연대 (추첨승)
▲고등부
경성고 5 (1-1 3-1 1-2) 4 배문고
▲중등부
재캐나다 5 (2-2 1-0 2-1) 1 휘문중

男中 1,500m 大會新

國體氷上폐막 棄權사태도

제63회 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하키등 3종목의 경기를 마치고 29일 폐막됐다. … 대회신기록 2개가 나왔을뿐 …

최종일 남중1천5백m 레이스에서 金寬奎(운내)는 2분18초F를 기록, 이번대회서 두번째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李永河(대우)는 남일반1천5백m에서2분8초99의부진한기록을마크했다. 한편 동대문 실내링크서 진행된 피겨스케이팅서는 林惠慶(이화)이 여고A조(7~8급)에서 종합 1백12·24점(석차5)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국부서는 池炫靜(리라)이 종합 1백1·76점(석차5)으로 B조(5~6급)서 우승했다.

◇스피드 스케이팅 최종일 기록(종목별1위)

▲남대 1천5백m=김현도(한체대) 2분13초32 ▲동여대부=강혜선(상지실전) 3분20초21 ▲동 남고부=배기태(서울고) 2분13초46 ▲동여고부=이언주(유봉) 2분25초6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⑩

『내 꼴이 우습지? 솔직이 말해줘. 날봐 나를 뭐라고할까?』

유원장이 거의 애걸하는것처럼 말했다.

『솔직이 말씀드릴까요. 사모님이 큰부자가 됐다고 놀이 뭐라고하나에 신경을 쓰시는거나 똑같이 과대망상일 뿐이에요.』 …

캐나다 외환은행 (MEMBER OF C.D.I.C.)

영 업 보 고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은행의 1/4 분기(1981. 11. 1~ 1982. 1. 31) 영업실적이 자산규모로 3천만달러(예금 9백만달러, 대출 5백만달러)를 기록 하였읍니다.

그동안 저희 은행을 이용하여 주신 교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4월 초에는 블루어支店(627 BLOOR)을 개설하여 더욱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1982년 2 월1 일

캐나다 한국외환은행장
최 승 낙

영 업 안 내

1. **체킹구좌업무**(개인, Current)
2. **예금업무**(Saving, Term Deposit)
3. **적금업무**(6개월, 1년, 1년반, 2년)
4. **외환·송금업무**(전신및 우편송금)
5. **수출입**(신용장개설 매입)
6. **대출업무**(사업자금, 무역금융)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FIRST CANADIAN PLACE에 파킹하시면 저희은행에서 파킹료를 쿠폰으로 드립니다.

※서브웨이를 이용하시면 YONGE TRAIN을타시고 ST. ANDREW에서 내려 KING ST.을 따라 YORK를 건너시면 됩니다.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 O. BOX402, TOR. ONT. M5X 1E3
TEL : 364—2890

캐나다은행이 취급하는 모든종류의 은행업무를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캐나다외환은행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시안밑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아 매니저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SMALL DOWN PAYMENT)
☎ : 1-514-637-6444

입주하셔서 네살난 아이와 1살난 아이 봐주실분 구합니다.
☎ : 242-2064(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경험있는 여자캐셔 구함.
오후4시부터 9시까지(서부지역)
261 Scarlett Rd. ☎ : 767-0762

입주하셔서 애기(2년반)보아주실분 구함.
(더프린 × 스틸)
☎ : 669-5784

아기 맡기실 분은 연락바람
스카브로 센테니엘 병원 앞
☎ : 284-4575(MR. LEE)

아이들(4살, 2살반) 보아주실분
연락바람(서부지역)
☎ : 678-2651

동부지역에있는 가게에 오후7시이후 파타임 캐셔로 일하고자함 ☎ : 421-6000(EX. 323)오후5시까지
293-6138오후5이후

자동차 메카닉 헬퍼구함.
중앙오토 써비스
☎ : 532-3946

용모단정한 여자캐쉬어 구함.
(이스링톤 써브웨이근처 사시는분 환영)
☎782-2878(저녁시간 연락바람)

스토아 캐쉬어 구함.
(영 × 에그린톤)
☎251-7031(5시 이후 연락바람)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 (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nforth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 그로서리·과일가게 *
이른음식과 땅콩들 좋은 위치이며 주위엔 많은 아파트 빌딩과 집들이 있음.
쉽게 번창할수 있는것임.
연매상 : $170,000
크 기 : 대강 1800 Sq. f.
아스킹 : $24,000 + 스탁
리 스 : 5년 + 옵션5년
☎ : 425-125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집을 팝니다"
○ 4베드룸, 쎄미 디태취
○ First 몰개지 $31,000 (Aug. 83)
○ 가격 $79,900
○ 미시사가 지역.
☎(B)752-6702, (R)275-1499(Mr. 박)

서 쪽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사고자 함.
파 실분 연락 바람.
☎ 749-9649 Mr. 엄

성업중인 가게급매
$65,000. (KEELE & SHEPPARD)
☎ : 633-7222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해밀톤 아파트 조밀지역에 전망좋은 과일가게를 개인사정으로 매매코자함.
☎ : 1-525-1326

세탁소 매매
스카보로지역 오전9 : 00~오후3 : 00
☎ : 751-7615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4500, 아스킹 $41,000, 렌트 $400, 리스 1+5(NO HEATING)
☎ : 221-2084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간 판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매매 부동산

록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이사 하셨읍니까?
●주소변경을잊지 마십시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6 남파 · 김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8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RCA Office근무등
●BOOK KEEPING & ACCOUNTING 이영철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0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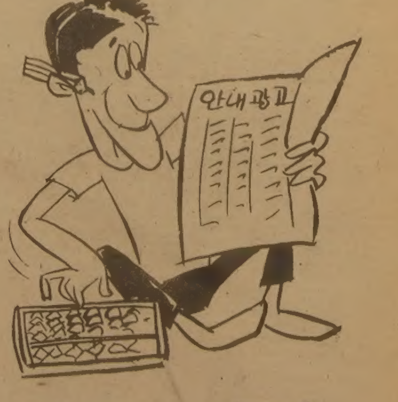
기 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광 고 접 수
533~2361

流星의 賦 <29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㉗

『히데쓰구는 사람이 아니다。짐승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선 풍신정권(豊臣政權)을 구출할 방도가 없었다。히데쓰구의 악랄한행위때문에 경도의 귀족들과 서민들의 풍신정권에 대한 신뢰는 이미 절대조각처럼 되어 있었다。사람들은 히데쓰구에게 대한 미움으로 해서 풍신가의 권력에 원한을품을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짐승이다』
할밖엔 그 원망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수길은 느꼈다。
온천에서 돌아온 히데쓰구는 당장 이 사태를 알았다。그러나 어떻게해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진 알수 없었다。히데쓰구의 측근들도、수길이 모녀범간의 사실도 알고 있다는 사실만은 보고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고 히데쓰구가 묻자 기무라(木村)는
『미쓰나리(三成)의 참언이 있은듯 합니다』
라고 했다。기무라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수길이 죽고 히데쓰구의 대가 되면 지금 수길의 측근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미쓰나리는 실각하게 될 것 이어서、미리 히데쓰구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히데쓰구는 후시미의 사태를 살폈다。사태는 심각했다。죽음을 당할지 몰랐다。
『날 죽일까?』
『그렇게 될겁니다』
한것은 심복 구마가이(熊谷)였다。구마가이는 히데요리가 탄생하자마자 이와 같은 위구를 갖게되어 기회 있을 때 마다 히데쓰구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왔던 터였다。구마가이는

『그러니까 앉아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후시미를 쳐서 수길을 죽이고 일거에 정권을 안정시키도록하자』
며 세부의 계획을 말했다。
『그만 그만、모반(謀叛)은 두렵다』
핏기 없는 얼굴로 히데쓰구가 말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히데쓰구는 수길로부터의 습격에대비하기 위해 외출할 땐 수원들에게 중무장(重武裝)을 시켰다。
이 사실은 곧 수길이 아는 바가 되었다。동시에 히데쓰구가 후시미의 허(虛)를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꼴이 되었다。히데쓰구로선 뜻 밖인 오해였다。
이 무렵 취락제로 히데쓰구를 찾아오는 다이묘오(大名)는 한사람도 없게 되었다。눈치 빠른 다테마사무네(伊達正宗)는 일찍이 한번 씩은 찾아왔던 것인데 발을 끊었다。히데쓰구로부터 황금 백장을빌었던 호소까와다다오끼(細川忠興)는 돈 관계로 해서 의심을받을까봐 겁내어 덕천가강(德川家康)으로부터 빌어 히데쓰구에게 갚은 이후 발을 끊었다。
가강은 그 후 에도(江戶)로 돌아갔는데 경도를 떠남에 있어서 세자(世子)히데다다(秀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태합(秀吉)과 관백(秀次)사이에 병전(兵戰)이 발생하거든 두말할 나위 없이 태합의 편에서 싸워라。태합이 만일 낙명하는 일이 있으면 주저말고 대판으로내려가 기따만도꼬로(北政所)를 호위하라』
기따만도꼬로란 수길의 정처(正妻)이다。이렇게 파열(決裂)된 상황에서 히데쓰구도 가만 있을 순 없었다。구마가이의 의견에 좇아 조정에 3천장의 백은(白銀)을 진상했다。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 신정권(新政權)을 승인해 달라는 저의로서 한 노릇이었다。

서울—海南、忠州—槐山등 6개區間 내일 DDD開通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서울—海南、忠州槐山등 6개구간의 시외전화를 장거리자동전화구간(DDD)으로 변경, 오는31일 0시를기해 개통한다。
구간별 지역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02)—海南(0634)▲서울(02)—忠州(0441)—槐山(0445)▲武(1557)▲大邱(053)—盈德(15 64)▲浦項(0562)—盈德(0564)▲扶安(0683)—高敞(0677)

美가수 시내트러 「암센터」에 誠金

★…『핑크』시내트러와 테너가수 루치아노·파바로티는 뉴욕의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암센터를위한 자선공연을 벌여 2백만달러(14억원)를 모금, 슬론·캐터링기념암센터에 기증했다。

<공개질문서>

존경하는 PAN ASIA 이창복 사장님, 귀하께서 [illegible] 해명한 글들이 동문서답식으로 너무 미흡함에 다시 몇가지 질문을 안 드릴수가 없읍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한글마저 잘못 이해하신것은 아니시라면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교민사회에 공개해서 더욱 신임받는 대회사로 성장을 시키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복식품이 그동안 무슨 폭리나 한것처럼 연막을 쳐놓았는데 좌우간 이기회에 삼복식품이 폭리한 돈이있다면 모두 한인사회에 희사 할터이니 귀하도 희사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귀하의 방계식품점들도 같은 의사인지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AN ASIA는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아는데 캐나다에 어느도매상이 기분에 따라 물건을 주다가 안주고 값이 상점에 따라 다르며, 도매값이 매주마다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PAN ASIA회사는 삼양라면, 샘표간장 대리점으로서 왜 주문을 해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지, 자기형제 상점에만 물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으로 전락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조건만 구비되면 누구와도 거래한다 했는데 그 조건은 무슨 조건이며 백일하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쌀 값이 올라갈 전망이 없다고 언명했는데 그 전망은 언제 까지 유효한것이며 만약 쌀 값이 올라간다면 귀하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읍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10년동안 14개 상점, 24명의 동업자가 전업, 폐업 또는 파산선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농간인것으로 귀하는 생각하십니까?

특별세일

- 장미쌀(가주미)특산미 50LB (CAL ROSE) ------------ $ 18.94
- D.Y. 참기름 ------1병------ $ 7.99
- D.Y. 우동국수 ------5LB--- $ 3.99

  D.Y. 막국수---------5LB--- $ 3.99

  D.Y. 소면--------- 4LB------ $ 2.99
- D.Y. 고추가루--- 1LB------ $ 2.90
- D.Y. 당면--------- 1LB------ $ 2.59
- D.Y. 보리차------ 2LB------ $ 1. 9
- D.Y. 옥수수차--- 2LB------ $ 2.59
- D.Y. 메주가루--- 1LB------ $ 1.99
- D.Y. 엿기름------ 1LB------ $ 1.99

한발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291—8317 367 PITFIELD RD.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D. Y. Import Co. 749—0579